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22호

http://www.snua.or.kr

동창회 환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 · 根 / 편집주간 許 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 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서울大人の 선구자정신으로 乙酉年을 빛내자!

林光洙회장 신년사



경애하는 서울대 동문과 가족 여러분! 乙酉는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30년 동문의 가정이 축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뜻하신 일들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아켜보면 여러모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교와 동창회는 오히려 발전을 위한 변화와 기능성을 보여준 귀중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黃炳鎬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많은 모교 교수들께서 열악한 환경을 딛고 국내외 학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연구업적을 거두어오르셔서 머지 않아 모교에서 국내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가 탄생할 것 같은 높은 기대감을 갖게도 한 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동문들의 애정어린 참여와 협조로 동창회도 내실을 기하며 알차게 기반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지질 고강화와 전문컨설러로 동창회보를 특기적으로 개선했으며, 동산대회와 첫 동문 바둑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을 뿐 아니라 특히 동문들의 회비와 특기장여금 덕분에 총동창회 기금이 목표액 1백억원 을 초과 달성하는 기록도 깰 수 있었습니다.

부담보다는 보람을 느낀 것은 모래알 같다면 서울대 동문들이 이분과 '서울대 예교관' '국립대 공동학위제' '세계대학 동수련' 등 간증되지 않은 각종 논란 속에서 모교를 지키기 위하여 존인도의 두 머리를 웃도는 동창회비를 납부해주시고 회보와 홈페이지에 따뜻한 격려와 따뜻한 충고를 보내주시는 등 팔복할 만한 탄압과 동집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에 총동창회는 모교를 돌볼 안와 같은 도전에 동문 사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응전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인식하고 그동안의 관련 논쟁이나 칼럼, 의국의 교육제도와 우수인력의 양성사태 그리고 와 대학 논의사항 등을 집대성해서 '일류대학교가 나라를 살린다'는 뜻의 특집 단행본을 발간 홍보하는 등 안으로

이와 유사한 여백한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대응책으로 삼고자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동창회가 내린 중요한 결정은 현 마포 동창회관 신리에 신축하는 동창회관을 장역날이라는 Concept과 명칭으로 건립하기를 내신 분에게 동창회 내에 독립된 장학회를 설립해 드리고 매년 소정의 운영예금 금리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분의 명의로 영수해 그분이 원하는 모교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총동창회 목적사업 중 장학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후배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모교 발전에 더 공헌하겠다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문들이 단합해가는 분위기에 부응하여 올해는 각 단과대학 동창회뿐만 아니라 지방 및 해외지부의 조직강화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몇몇 국내와 지방 오에 한국과 가깝고 국제정치 맥락에서 본 때도 중차대하고 특별한 역사적 관계가 있는 중국과 일본지부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금세기 를 '인재확보를 위한 전쟁'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즉 우수한 인재육성과 확보에 국가와 기업의 경은이 겹쳐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재확보의 중심에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서울대인이 서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국 치열해지는 무한 경쟁 속에서 국가와 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는 역시 서울대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은 남에게서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민족 속에 더 겸손하고 謙遜自重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좀더 나누고 베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삶을 실천하고 사임이나 연구활동등 통해 국가 발전에 더욱더 공헌해야 하는 부귀영화가 있었습디다.

위에는 남의 해입니다. 남은 '文·武·勇·仁·信'의 五德을 갖춘 가족으로서, 저는 그중 새벽을 알리는 닭의 각목과 먹울 것을 보면 모두 불려들이 함께 먹는 仁의 덕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금년 한 해 선·후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대인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경주합니다.

동문 모두에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는 해가 되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 아침 <蘭汀 朱敏淑 作>



康養神和

東江 趙守鎭 신년취호

해설 :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뜻을 맞추어 주고 곧고 바른 청렴결백한 마음을 기르고 지낸다.

해의 : 대립과 갈등, 질서와 반목으로 일궈진 우리 사회가 새해에는 화평스러운 마음으로 화합하고 곧고 바른 청렴한 마음을 길러 밝은 나라를 건설하자는 뜻에서 짓고 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울대총동창회 임직원 일동

만든 사람 : 논설위원 金哲演, 金昌悅, 朴世熙, 林庚申, 李炯均, 南仲九, 金鍾淵,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燾, 李元龍, 安國正, 李慶福,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泰, 朴時熙, 辛京烈, 姜大錫, 李元愛, 朴聖姬, 朴曉俊, 金鍾國, 편집장 安典燾, 편집부 기자 朴宰宇, 表智媛, 金南柱, 광교부장 金千鶴

대학의 세계적 무한경쟁시대

연구역량 강화해야

鄭雲燦총장 신년사



2005년 乙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 아침을 맞아 우리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난 2004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정치·대통령 탄핵에서 시작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협정수교와 헌법재판소 4대 개혁법안 문제 등으로 일년 내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경제는 내수침체 속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난해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새해 새 아침을 맞아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국민의 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해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동시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

룩한 위대한 역량을 지녔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국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온갖 혼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크지는 않지만 강한 나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천애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서울대학교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대에 대한 비판적인 일부 여론은 물론 '서울대 폐지론'까지 등장했으니, 다소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울대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서울대 가족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취임에 즈음하여 약속드린 일들을 수행하며, 서울대가 세계 속에 당당히 나서는 데 필요한 변화를 실천에 옮겨가고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학이 추진한 가장 중요한 일은 학사과정 입학정원 감축이었습니다. 예산과 자원의 제한된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감축이 불가피했습니다. 입학정원을 줄이는 일은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자기희생적 결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천애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최근에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대한 국제적 평가를 접했습니다. 상해교통대학교 영국의 더 타임스가 실시한 세계 대학 평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두 기관의 평가가 서울대의 위상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학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서울대학교는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세계적인 대학들과 무한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세계 수준의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다양성유 제고해야 합니다. 제가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화도 우리 대학의 중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교수들 적극 초빙하고 외국대학과 학생교류를 강화하는 등 국제화를 향한 노력이 없는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새해에 제가 대학을 운영할 기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서울대가 지향해야 할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실천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의 노력을 대가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벽두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학과와 단과대학 중심의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에서 서울대학교와 우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활발적인 활동주의를 지양하고 좀 더 경쟁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분별한 시장주의가 돼서는 안 될 것이지만, 세계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은 필수적입니다.

천애하는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

올해는 乙酉年 닭해입니다. 설화에 따르면 닭은 혼돈을 극복하고 새로운 창조를 알리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든 닭소리는 새아침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60년 전 乙酉年에 우리 나라가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시 맞는 乙酉年 닭해가 여러분에게는 큰 성취의 해가 되고,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악출추

지난 일년은 서울대인들로서는 마음 고생이 심한 한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부 물지성적인 '완장부대'들에 의해 학력이 기록적으로, 학위가 특권으로까지 치부되면서 서울대는 신오적(新五賊)의 하나로 회자될 정도였다. 그 어느 때보다 서울대가 한국사회의 서열화, 학벌조성, 입시경쟁의 주범으로 매도되면서 개혁이

라는 이름아래 폐지론에서 분할론, 민영화론, 축소론, 국공립통합론 등으로 몸살을 앓은 한 해였다. 여기에 서울대가 세계대학평가에서 1백위권 이하라는 우물난 소식들이 들려왔다. 과학기술논객인(SCI) 등재 논문수에서 대학별 순위로 세계 35위, 국별 순위로는 6위를 차지한 바 있지만 서울대는 거의 매년 세계 1백~2백위권에 머물렀다.

신오적론과 함께 1백위권이라는 대

학평가는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하는 호재로 사용되었다. 물론 서울대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폐지론은 연구역량의 수월성(秀越性)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집도 없지 않다. 현재 서울대 예산은 세계 명문대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세계의 대학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재정자립도, 대학도서관의 장서량, 교수 1인당 학생 수, 장학금수혜율,

국제적인 저명교수 확보율, 노벨상 수상실적 등이다. 이런 기준들이 대학의 질적 수준이나 창의력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서울대를 평가하는 데 아주 불리한 기준임에 틀림없다.

한국 학생들이 최근 학업성취도국 제비모(PISA)에서 본세계평균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차지하는 등 지난 10여 년간 국제학업올림피아드에서 잇달아 최상위권에

오른 것으로 발표했다. 이들 우수학생의 절대 다수는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이다. 차체에 대학의 질적 수준과 창의력을 평가하려면 세계대학 학업올림피아드 같은 것을 만들고 여기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어떨까. 학업올림피아드를 통해서 참다운 지식을 겨루보자는 것이다. 올림피아드가 단시간에 문제해결능력을 가리는 대회라는 비판이 있다며 평가방법을 보완하면 된다.

예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케임브리지 등 영·미의 유명대학들은 매년 대학 등급 매기기 좋아하고, 세계 지식시장에서 치열한 마케팅을 벌이면서도 전 세계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학업올림피아드 개최에는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세계 지식시장에서 그동안의 교육관적인 지식 카르텔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올림피아드에서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세계 최고대학이라는 이미지에 손상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續)

2005년 정기총회 3월 18일 롯데호텔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칙 제4장 제11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05년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① 제7회 서울대총동창회 연감大實 시상
②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없음.
동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6차·관악회 92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달띠 동문 10인의 新年 소망

乙酉年 '닭의 해'가 밝았다. 닭은 12주 중 열 번째 동물로 새해를 알리는 습관이 있다. 닭은 예로부터 문·무·용·인·신의 五德을 갖춘 동물로 여겨졌다. 즉 머리는 관을 쓰고 있으니 학이요, 발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武요, 적을 찾아 물러서지 않고 쫓을 때까지 싸우니 용이요, 음식을 보면 혼자 먹지 아니하고 함께 먹으니 인이요, 밤을 지키고 그 때를 잊지 않으니 충이요 했다.

경제 회복 위해 여·야 하나되길



朴熙伯(33년생·57년 離大卒)
박희복정형외과의원장·
문화 부회장

언제나 새해가 되면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다짐하셨다고들 한다. 의외로든 예외는 아니어서 중·소병원의 도전과 일반기업의 경제 영난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이 풀려 다시 활발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일반국민의 삶에 대한 밝은 희망이 되돌아 올을 고대한다.

새해가 되면 무언가 희망의 씨를 찾아 새 희망을 기대해 보는 습관이 예로부터 내려왔다. 새해 乙酉年은 '새'자가 두 개 겹쳤으니 서로 상국하지 않을뿐더러 닭은 새 날이 밝았음을 기운차게 알리고 천지가 열리는 음운을 우는 새이다.

자! 그러나 새해에는 서로 싸움하지 않고 기운차게 다시 약속하는 나라 경제의 회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물 음유년의 뜻풀이대로 밀고 나갔으면 한다.

논어에 칠십을 일컬어 칠십이종(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이라 했다. 나이 일흔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으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되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었는가. 한 분야에서 원로자집을 받고 살고 있으니 노욕을 부릴 것이 없다. 단지 한 인간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다.

새해에는 모교의 발전은 물론 서울대가 바로 시교 나래가 될 수 있도록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펼쳐 도약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모든 동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역군으로서 애교심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상식·진실이 통하는 사회 소망하며



金在華(45년생·67년 離大卒)
대통령 보건의료특별보좌관

乙酉年 아침이 밝았다. 순리대로 어김없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건만 마음 한 곳에서 어느 해와는 또 다른 느낌이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동안 풀이온 나의 소망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하나 둘 결실로 맺어지고 있다는 기쁨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필자는 허방방이다. 어찌 보

면 나의 삶은 1945년 이후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온 우리 나라와 그 궤적을 함께 했던 것 같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민족은 뼈아픈 전 쟁의 고통을 비롯해 크고 작은 재 년과 갈등을 겪어 왔지만, 그와 같은 곤경을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 나라를 세계 12대 강국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민족의 우수 한 두뇌와 지혜가 밑거름이 됐으 며, 그 한 가운데 우리 세대에 똬

문들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 축적해 온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끊임 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가시스템을 확립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새해 아침, 우리 나라의 합리적 안 국가시스템의 완성을 꿈꾸며 마음에 그려보는 소망이 하나 있다. 이제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

든 국민 개개인의 진실이 통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꺾을 도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사회는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확고한 토 대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곧 국가 운영시스템의 합리적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우리의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인 양심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진실이 통하는 사회'를,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회에서 마음껏 호흡하고 싶다.

조심으로 돌아가 희망의 빛 찾자



宋善圭(57년생·80년 人文大卒)
김치현 시인·복자김치현
총괄과장

네 번째로 다시 찾아온 닭의 해 2005년을 설렘으로 맞이하면서, 필자가 젊어서 48년을 뒤돌아보며 금년 닭의 해에는 좀더 '참'으로 있는 '진' 사람이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지난 48년의 전반기 24년은 내 자신을 위한 학습의 시간이고, 후 반 24년은 국가를 위한 공부의 시간이었습니.

관악캠퍼스에서 인문대학 4년과 행정대학원 3년의 학업기간 동안 'Veritas Lux Mea'를 추구하며 형성되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뒤 돌아봅니다. 짙은 회색 빛의 이 시절 타는 목마름으로 대학 빛들과 관악산 등산로의 '세느강 건너 집', 봉천동의 한집집, 신림동의 가선문에서 소주잔과 맥주잔을 부 닷치며 '고래사냥'을 외치고 인문 대의 연못변의와 잔디밭에서 이성과 지성을 토로하던 그 정경이 오

늘날 나의 근원임을 깨닫습니다. 갈등과 이념의 순간 순간 대학 시절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 나의 초심을 바로 세우고 희망의 빛을 찾아보았습니. 그 희망의 빛을 쫓으면서 갈등을 풀고 이념을 넘 어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수 있었 습니다.

"통일한 갈등에 두 번 집결 수 는 없다"는 2천5백여 년 전 그리스 철학자 Hericlitus의 말과 같이 이 세상에 영속하는 것은 아무 것

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그들이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한 나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 시절 풍겼던 나의 꿈입니다. 이 사회, 이 국가를 위해 '참'으로 있는 '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세월의 물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작 년 보내는 금년, 올해보다는 다음 해에 좀더 나은 '참으로 있는 진' 사 람이 되고자 합니다.

균형잡힌 직장생활·인간관계 다짐



李鍾吉(69년생·91년 工大卒)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부교수

딱 한 다섯 살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 나이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직장인은 입사 5년차 정도 되면 제법 익숙하게 일을 처리 할 줄 아는 핵심 인력이 됩니다.

제 직장 산업기술대에서 딱 한 다섯 살 맞이하는 해가 바로 이번 새해입니다. 그동안 증진을 세

대로 잡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지 내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인식하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 해야 할 일들과 하고 싶은 일들을 균형 있게 해내고 싶습니다. 만나 아깝 분들과 만나고 싶은 분들과의 관계를 굳게 하고 배우고 싶 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짐을 해봅니다.

다짐 하나, '직장에서 균형 잡

2005년은 산업기술대가 독특한 실험형 '교육' 연계모형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해입니 다. 많은 부가적인 일들로 더 많이 군주해될 것이라. 직장에서의 삶이 바빠 일들로 위하여 방향성 을 상실할 위험이 커질 것입니. 따라서 연구, 학생들과 그와 상 하협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시 간을 효율화해 해봅니다.

다짐 둘, '균형 잡힌 인간관계

를 맺으며 합니다.'

인생의 대세배담들에서 보시는 지면에 송구스럽습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동안 만나 뵈었던 많은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려 합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사소한 어려움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법조인상 세울 것



崔日門(81년생·04년 法大卒)
사법연수원 연수생

사법시험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막대한 '법조인'이 아니라 '어떤 법조인'이아 하다는 한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법

대를 선택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 대학에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더 고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

으며 깨우친 것들을 통해 나만의 법조인상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을 마음속에 새 기고, 항상 그 마음의 소리에 귀 를 기울이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신념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났던 한 선 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쾌활한 대 날카로운 뺨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참 좋아했던 그 선생과 그 난 은 좀 힘들어 보였습니다. 새파

새파 조금 현실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은 땅 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존재를 붙잡지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한민족인 인생의 진정한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지 않을까요? 어찌 사회를 경한하지 못한 터라 앞으로 현실과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견디러인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

희망을 가지 봅니다.

2004년: 마감되고 2005년이 시작된다고 해서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해의 시작이라는 기회를 통해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지 고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의 태양이 동문 신우파 녘을 모두에게 화창하게 비추며, 여는 밝은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역경’에는 닭을 팔래의 손(翼)에 해당하는 동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손과 팔의 방위는 동남쪽이다. 이 방향은 여명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닭은 희망찬 출발이나 상서로운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닭의 해를 맞이해 각계 동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닭띠 동문 10명에게 2005년에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들어보았다.

닭띠 동문 10인의 新年 소망

경쟁에서 한발 비켜서 보면 어떨지



姜仁淑(33년생·56년 文理大卒)
영인문화과학장

플로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보면 안드레이 공작이 싸움터에서 자기부대 깃발을 지키려 뛰여 가다 적의 포화를 맞아 비참한 형상으로 땅에 쓰러지는 장면이 나온다. 쓰러진 그는 戰場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기를 쓰며 눈을 뜬다. 그때 안드레이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뛰여 다닌터 방금 전의 세계

와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 그것은 無敵과 이어지는 ‘조용하고 평온하며 숨엄한 세계’였다. 깃발 하나를 놓고 죽기 살기로 정팔전을 벌이는 싸움터의 생리와는 판이한—영원한 본질적인 세계가 거기 있었던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기는 모습을 보면 나라 전체가 불바루를 끓고 있는 불카마 속 같다. 거기에서 사람들은 모두 깃발 하나를 빼앗으려고 목숨을 거는 치열한 생팔전에

몰두해 있다. 정치가들은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고, 노동자와 고용주가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며, 농민들이 다리를 트럭으로 막고 있고, 경찰은 악어 방저 그들과 맞서고 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한발 물러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라고 권하고 싶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한 목숨을 걸만한 본질적인 일인가를 잠시라도 생각할 수 있게 그들의 등을 등에 대고 눈케 해

보고 싶다. 삶은 트랙 위에서 벌어지는 마라톤 경주야 아니다. 설사 마라톤 경주와 다름없다 한들 그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월계관을 머리째 얹는다고 그 승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乙酉年 한 해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이따금 명백적인 달리기와 대열에서 잠시 멈춰 서서, 싸우는 것, 이기는 것 이외의 일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는 불필요한 비용·희생 줄일 때



姜桂圭(45년생·68년 商大卒)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돌이켜 보면, 우리 포퓰리즘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 자리잡았습니다. 그 시절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요구했습다. 수많은 학생과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고, 독재 권력과 권력을 유지하고자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다.

인류역사는 ‘자유’의 확대와 부

의 좁다’를 향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본래기를 돌아보더라도 많은 희생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나마 자유가 확대(민주주의의 발전)되고 부의 축대(경제발전)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다.

본인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90년대 이후 권위주의가 퇴색하고 민주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면 어느정도 각계의 목소리가 일제에 분출되고 권

위주의 시대에 기록권을 누렸던 이익집단들의 방어적 반격까지 합쳐지면서 우리 사회는 한시도 조용했던 적이 없었습다. 이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격은 다르지만, 민주주의는 그 수준에 따라 다양한 비용을 요구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줄이는 과정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갈등,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과 풍토를 접합하는 데에 더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교를 포함한 대학들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민주주의의 비전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우리가 지불할 양보다 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에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합니다.

후배들과 함께 이공계 부활 꿈꾼다



金惠顯(57년생·80년 自然大卒)
엠에프시스템즈 전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여성의 경우)라는 뉴스를 얼마 전 보게 됐는데 아마 옛날보다 한 20년은 늘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자원은 늘어난 수명을 그냥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활동 가능한 세월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나이에서 20을 감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49세가 아니라 29세부터 앞으로의 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를 돌아보는 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정말 30대처럼 모든 일에 정열과 꿈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고 싶다.

요즘 들어서 이공계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과학기술은 기업 및 국가 가치의 원천이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은 소득 2만불 달성의 성장동력이다. 이 문제는 우리 이공계 동

문들의 활발한 이공계 활성화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세상에서 특허를 받은 우리 동문들의 관심과 노력! 필요한 때라 생각된다. 세계에는 이공계의 부활을 꿈꾼다. 이는 결코 카피처럼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으니 걱정 말고도 말하게 되길 소망한다.

얼마 전 읽은 신문 사설 제목이 ‘상처 입은 매화가 먼저 핀다’였다. 이 사설에서 글쓴이는 상처 입은 매화나무가 성한 매화나무들보다

더 먼저 꽃망울을 틔우는 것을 묵격하고 글을 썼다.

그렇다. 혹독한 시련이 자신을 단련시켜 나날 기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짧은 시절 우리 40~50대들이 이제 다시 앞장서서 후배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시들거나 물러서지는 인연다. 세계에는 상처 입은 사들래, 그리고 특히 이공계가 매화처럼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아는 것 나누고 가진 것 노나고파



金知賢(69년생·92년 師大卒)
MBC 나나운서

새해 소망. 글짜·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이치 나누는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것. 나의 꿈은 독일에 선생님이었지만, 지금의 직업은 아내운사다. 딸이 직업인 판자는 최근 글까지 쓰게 됐다. 얼마 전 아내 대령서점에서 사는 내가 화상이 ‘아연 아니운사’가 쓴 ‘새날엔 여자’ 어디 있어

요?’라고 물었다. 순간 웃음이 나왔다. 내 책의 제목은 ‘새날엔 미인’이었기 때문이다. 람블리가 쓴 ‘새날엔 미인’ 같은 현대미술에 가까이 가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젊은 한국 예술가들을 소개했다.

그동안 나는 늘 뭘까 전달하고 나누는 일을 소망해왔다. 나누는 일에는 항상 ‘누구’라는 대상이 전제된다. 비록 선생님의 꿈은 이렇지 못했다. 나는 학생들과 독일의 문화와 협력을 나누고 싶었

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즐거운 문화회기’에서는 다양한 동시대문화를 시청자들과 나누고 있다.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이 시대 젊은 예술가들을 대중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썼다. 나누는 일에는 ‘내가 아니라 항상 나누는 대상’에게 어떤 비전과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아름답게 동네 친구들과 하나 뿐인 설날 뽕기를 노나 버린 생각이

난다. 뽕기가 3개일 때 우리는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뿐일 때 우리는 친구들과 하나를 쪼개서 ‘노나’먹는 것이다. 이것이 ‘나나’와 ‘노나’의 미묘한 차이다.

올해에는 역시 아니운서로서, 그리고 미술을 사랑하는 사들로서 새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나눌 것이다. 아름다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나는 그것을 쪼개서 사들들과 나눌 것이다.

문화산업 끌고루 발전하길 기원



羅碩柱(81년생·04년 音大卒)
모교 대학원 작곡과 석사과정생

다가오는 乙酉年은 나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가 될 것 같다. 그간 일구어놓았던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처럼 뚝뚝 해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그 모두가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하고, 나아가 그 결실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내가 됐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나의 부

족한 부분을 깨닫고 꾸준히 연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 사회에 비추는 소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절실한 것이 있다. 많이 보이지 않는 불운으로 한국의 음악시장이 갈 침체기에 빠져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이 많이 열리고 나쁘지 않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 다들 소망하는 하다. 특히 클래식

연주회의 경우 여러 참신한 기획을 통해 매니아층의 전유물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 막 들어온 객석을 보더라도 그다지 놀라지 않게 된 것이다. 음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을 확실히 요구하는 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음은 다행히 같다.

이렇듯, 좋은 공연은 불황 속에서도 대부분 성공을 거두지만은 반시장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는 창작자의 저

하로 이어지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될 것이다. 콘텐츠의 확보 없이는 당연히 좋은 공연도 나올 수가 없다. 외환하는 소비자들만 원할 것 아니냐 근근적인 활로를 찾았으면 좋겠다. 내리막을 걷고나 새해에는 부디 오페라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음악과 함께 하는 다른 모든 문화산업들이 끌고루 발전하고 다같이 목표 정리를 뛰여 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의과대학

제1회 張起呂 醫道賞 시상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6일 모교 연건캠퍼스 한천호관 기전홀에서 제1회 張起呂 醫道賞 및 제8회 한천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故 張起呂(32년) 京城醫學會(32년) 박사의 학문적 업적과 열정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장기여 의도상'의 첫 번째 주인공

으로 여수 예방병원 金仁權(75년) 원장(사진 中)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천호학상 수상자로 연구계획 부문에 서울과학기술대 李榮仁(86년) 교수, 연구실적 부문에 울산대 李起業(80년) 교수와 한림대 宋秉根(81년)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

패의 상금 1천만원이 수여됐다.

金仁權원장은 "학문, 능숙한 기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그 분야에 비할 수 없는 제가 이런 과한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송구스럽다"며 "아직 미완의 저에게 이런 영예의 상을 준 이유는 이제까지의 행적보다는 앞으로의 나갈 길에 대한 격려와 재촉으로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련의 기간 중 국립수목도보원 경험을 계기로 한천호학상(나환자) 치료에 일생을 바친 金仁權은 25년간 한천호환자와 소아마비환자들을 비롯한 지체장애자의 재활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의료의 손길을 펼쳐왔다.

동창회는 국민들에게 한신적인 의사의 모습을 알리고 의사들이 가질 줄 바라는 길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상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대학원

'자랑스러운 동문' 시상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申瑞亨)는 지난 12월 10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모교 보건대학원 白南興(68년) 주·사·진(左)·文玉倫(68년) 교수, 서울보건대학 具聖賢(69년) 학장, 서울교원대 朴英泰(69년) 교수, 金花中(71년) 대통령 보건복지 특별보좌관이 선정됐다.

白南興동문은 "자격이 안 되는 데 재발령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겸손해하며 보건대학원에 들어오길 잘 한 것 같다고 기뻐했다. 金花中동문은 "어려서 태어처를 받는 상"이라며 "몇 개 단체에서 제의는 있었으나 거절하다가 이 상 받음이 가치가 있겠다 싶어



받게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보건대학원동창회를 대표해 申瑞亨회장이 보건대학원 梁奉政(76년) 社會大學(76년) 학장에게 도서·구입 및 학술세미나 보조비로 2백만원을 전달했다. 梁奉政은 "어려운 동창회 사랑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더욱더 소중한 돈인 것 같다"며 "우수민재를 키우는 것이 그 보답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종 후 이어진 경품추첨 시간에 朴聖賢(61년)·金乙祥(73년) 동문이 자전기와 디지털 카메라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맛보았다.

상과대학

모교에 학술연구비 1억원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履)는 지난 12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언지니언하우스 중식당 급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4년 동창회 사업결산 및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모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영대학과 경제학부에 각각 5천

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鍾順(52년)·韓英國(54년)·金斗廣(56년) 부회장, 朴容履(53년)·韓準石(53년) 이사,

모교 경영대 朴容履(75년) 학장(사진 左), 趙秉成(71년) 교수, 李俊求(72년) 경제학부장 등 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간호대학

'期이사의 날' 행사 가저

간호대학동창회(회장 金敏子)는 지난 12월 3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 신관 101호에서 期이사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李道雄(65년)·金彩敬(66년)·劉玉秀(75년) 부회장, 간호대 金錫鎭(72년) 부학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

이 참석했다.

지난 12월 1일 영결식을 치른故 徐文子교수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기이사 소개 및 기념 모임에 대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본부장으로 승진한 朴光道(79년) 동문과 원장으로 승진한 李美珠(85년)·安雪成(85년)·崔美珠(86년) 동문이 축하인사를 보냈다. (南)

사범대학

자랑스러운 동문 6명 선정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相禹)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프대지먼트홀 신세계홀에서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자랑스러운 동문상 시상식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로 한국행정과학연구소 李堉珍

(57년) 소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朴柱山(64년) 회장, 모교 사대 鄭南壽(66년) 교수, 삼성에버랜드 사육사(69년) 사장, 모교 생활대 李恩英(70년) 교수, 강원대 崔賢榮(73년) 총장이 선정됐다.

수상자를 대표해 李堉珍동문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귀한 상을 받게 돼 행복하다"며 "세태에도 우리 동문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를 위해 禹南賢(51년)·李堉珍(52년)·閔丙熙(56년)·李堉一(58년)·고문, 李相禹(60년) 회장, 李惠星(62년) 부회장, 李裕福(63년) 동문 등 30여 명이 금품을 협찬했다.

경영대학원

張萬基·金正泰 동문 대상 수상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金英大)는 지난 12월 21일 서울 잠충동 서울클럽에서 제5회 경영인대상 시상식을 열고 한국인간개발연구원 張萬基(68년) 원장(사진 左)과 金正泰(74년) 前국민은행장에 서울대 경영인 대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는 趙永秀(58년)·金權鉉(63년)·孔大福(68년) 고문, 金權鉉(70년)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대만 유학생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張萬基동문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신념 하에 지난 75년 인간개발연구원을 설립, 30년 동안 1천3백79회의 조직

미나 등을 통해 인재양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金正泰동문은 지난 98년 비은행권·비관료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주부은행장으로 취임, 2001년 통합 국민은행장에 선임됐고 현재까지 혁신적인 경영 마인드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금융발전과 국가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편 모교 교수 우수 강의상 수상자로 선정된 李錫雨(78년) 經濟大學(78년) 교수가 '우리 나라의 회계 관련 이슈'란 주제로 회계부패 사례와 투명한 회계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강연했다.

알림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조감도 및 입면계획 현상공모

모교 후배 자랑스러운 대한 장학사업을 확충하고 21세기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현 모교 동창회관 자리에 역사상 최초로 장학빌딩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모교가 세계 속의 명문대로 발돋움하기 위한 30만 서울대인의 이상과 열원을 담은 장학빌딩의 조감도 및 입면계획안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내용 : 입면면적 아이디어로 명쾌한 컨셉의 전개가 표현되어야 하며 표현방법 및 제출물 제한이 없음.

1. 용모기간: 2005년 3월 31일까지
2. 응시자격: 전 동문 및 서울대 재학생과 국내외 전학설계사무소 종사자 및 이와 관상 있는 분
3. 건축개요: 부지면적-1,713.1㎡ 건축면적-899.32㎡
건 설 면적-20,537.25㎡ 건 설 용-52.5%
용 적 률-798.43% 규 모-지상 18층, 지하 5층
4. 제출내용: *부지: 사진, 시뮬레이션(컴퓨터 그래픽) 등 각종 외관에 대한 자료
*서식: 제한 없음
5. 제 출 처: 서울시 마포구 도곡동 18-2 (우) 121-812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위원회 (02-702-2233)
6. 시상방법: 2005. 4. .
7. 시상내용: *대상작-최우수상 (1점, 100만원)
*우수작-우 수 상 (1점, 50만원)
(지적 등 상제한 사항은 동창회 사무실로 문의 바람)

* 당선작을 최대한 참고로 하여 규모, 예산 등을 감안하여 당선작대로 설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작의 아이디어는 본 위원회에 귀속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빌딩 건립위원회



정치·외교학과

金相廈·朴鍾圭동문 기금 약정

정치·외교학과동맹회(회장 金相廈)는 지난 12월 16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클로라이볼에서 송년회 및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金 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2억원의 기금을 모으셨다고 약속했으나 1억원 정도에 그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며 "부족하지만 새해에는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학과동맹회는 12월 현재 4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金相廈·朴鍾圭동문이

각각 1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이날 모임에는 상임고문 金相廈(49년차)회장, E1 부총합(51년차)명예회장, KSS해운 박鍾圭(61년차)고문, 새천년민주당 韓甲甲(63년차)대표, 한국신문방송인클럽 李均均(64년차)회장, 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 南仲九(64년차)소장, 본회 許璫(68년차)사무총장, 영린우리당 李富榮(69년차)의장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했다.

(南)

도시환경교위정책과정

송년모임서 장학금 모아

도시환경교위정책과정동맹회(회장 吳元燮)는 지난 12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보고 환경대리인 黃琪源(75년차)원장, 李東寅(86년차)부원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吳元燮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는 우리 동맹회가 확고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며 "내년에는 동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



움어 되는 등장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및회장의 제안으로 학식에서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백50만원이 모금됐으며 이날 참석한 동문들이 남부한 호비 전역도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기독교동문회

새 사무실·홈페이지 마련

기독교동문회(회장 鄭榮錫)는 지난 12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 鄭회장을 재선임했다.

鄭榮錫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무실과 홈페이지(theory.snu.ac.kr/chalum)를 마련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회원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은 구축된 상태"라며 "이를 통해 우선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문회 사무실(883-0635)은

모교 관악캠퍼스 기독교인회관 내에 위치해 있다.

기독교동문회는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교수신문인 아크로폴리스 발간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천국증진을 위해

여름가족캠프를 오는 8월 11일~12일 양일간 개최한다.

그밖에 회원명부를 발간하고 작년에 중단됐던 서광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알림

제7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교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이밖의 내용으로 제7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성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성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성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파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5년 1월 31일
 - 2) 접수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처: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05년 3월 18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光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一鶴

문리대 OB산악회

姜敎長간사장 선출

문리대 산악회(회장 曹圭植)는 지난 12월 28일 서울 동숭동 중식당 지하관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무즈타파타 등반대 및 실크로드 탐사에 남긴 발간제와 50주년 기념 수필집 발간사업에 대한 진행보고, 간사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간사장은 姜敎長(78년 人文大卒·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문이 선출됐다.

보건의료정책 최고과정

무료진료 봉사활동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맹회(회장 金方堽)는 지난 12월 6일 崔炳秀(11기)부회장 저택에서 白純之(47기)수석부회장, 田永球 1기회장 등 각 기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겸한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펼쳐진 무료진료봉사 활동상황과 보건의료정책 세미나에 대한 결과보고가 이루어졌다.

수익과대학

새 회장에 鄭英彩동문

수익과대학동창회(회장 李(薛)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익과대학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鄭英彩(60년후·가족위생광역지원본부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鄭英彩회장은 보건협회 부회장, 수익해부학연구회장, 중앙



대 제2캠퍼스 부총장, 한국중산학회장, 모교 보건대학원동창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가족번식학회 학술대상, 대한보건협회 보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관악무역인회

尹炳和회장 선출



관악무역인회(회장 曹章鉉)는 지난 12월 14일 서울 역삼동 대려도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인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尹炳和(62년工大卒·우방무역 회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尹炳和회장은 공동대청회 부회장, 신유고분자공학과 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徐廷奭(64년 昨大卒)·崔熙五(67년 工大卒)·金賢通(71년 藥大卒) 등에 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미술대학

金鳳九회장 선임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12월 6일 모교 관악캠퍼스 박물관에서 2004년도 온라인전 발표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金鳳九(63년후·이화여대 명예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金鳳九장은 제3회 서울국제미디어

아트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미술협회를 맡고 있다.

체육교육과

金義洙회장 추대



체육교육과동창회(회장 金昌圭)는 지난 12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金義洙(64년후·모교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金義洙회장은 "우리 회원 가운데 다수가 중·고등학교 교사인데 이 분들을 설득시키고 도움을 주는 일에 소홀했던 것 같다"며 "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체육교육과동창회는 사업계획 보고를 통해 발전기금 '1구과(5만 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연간 1백80만원씩 지급해 오던 장학금을 3백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제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 추천해 주세요”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는 제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은 2003년 4월 발족한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와 서울대 총동창회가 서울대 출신 언론인들 가운데 한국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훌륭한 서울대 출신 언론인을 찾아 매년 시상하는 서울대 언론인 大賞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서울대 출신으로 국내외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에 근무하는 언론인과 언론사 경영인, 언론 연구 학자, 언론단체 종사자, 언론정책 담당자.

2. 추천인:

- 1)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잡지사의 대표, 주필, 주간, 해설위원장, 편집 보도국장, 편집장 등 부서장
- 2) 언론단체의 대표
- 3) 대학 재학대학 학회장, 대학원장

3. 심사대상: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의 공적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3년 이내의 공적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 1) 추천서: 추천인은 후보자의 상세한 인적사항과 이력 및 경력, 공적 개요, 추천 사유를 영리한 자료 양식의 추천서를 작성해 E-mail로 snupress@hanmail.net에 2005년 1월 15일 밤 12시까지 접수시켜야 합니다.
- 2) 공적 자료: 주요 기사, 방송 자료, 논문, 공적서를 파일화해서 E-mail로 접수. 필요에 따라 직접 제출 준비도 갖추기 바랍니다.
5. 추천 기한: 2005년 1월 15일
6. 수상자 발표: 2005년 1월말
7. 시상식 및 시상 내역: 2005년 2월 중순, 상패와 상금 1천만원
8. 문의: E-mail(snupress@hanmail.net)

서울대 언론인 大賞 관리위원회

마로니에회

張基浩대사 환송연 개최

문리대 64학번 동기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熙熙·단국대 교수)는 지난 12월 1일 서울 서초동 '가외집순두부'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 대사로 부임하는 張基浩동문 환송연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못한 채 방탄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張대사의 무사를 빌었다.

이날 모임에는 기획예산처 金炳仁장관, 중앙일보 卞相根논설위원, 金銀星 前국정원 차장, 본회 許 鶴사무처장, 가천문화재단 宋 錫우사무처장, 한국부여정보통신



平東平장사, 매일통신 金洪勳대표, 노아지과 盧 正원장, 孫 前우대대사관 공사, 車進道 前아메리카항공 한국지사장, 명지대 宋鍾奭초빙교수, UPS의한장은 鄭 弼珠대표, 태화기원 金永植대표, 원강 스토리문화 崔政賢발행인, 金雲峰사무사, 李孟龍 前이원영과나이지장, 安光允 前LG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서울 중학동 한글일보 12층 송년결합에서 鄭熙熙회장이 부부를 비롯해 40여 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입학 40주년 기념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기획예산처 金炳仁장관이 참석자들에게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64학번' 입학 40주년 기념'이라고 새겨진 대항정시를 선물했으며, 金銀星동문이 경비임제를 부담했다.

(南)

“빛보다 빨리 비상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문화를 찾아서 **李御事 초대 문화부 장관**

2005년 乙酉年 납뽀 해 새 아침이 밝았다. 최근 동북아에서 우리 나라의 역할이 널리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문화 코드가 세계 각국에 전달돼 큰 파급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납뽀 동문 중 한 분으로서 1956년 모교 문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며 우리 나라의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중앙일보 李御事(李御事)에게 이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국제 정세, 또 새로운 문화 코드인 한류 등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는 것은 기쁘고 있는 일일 것이다.

— 안녕하세요. 여전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올해가 유유년 납뽀 해인데요. 선생님께서도 납뽀시지요. 납뽀 해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나요.

피는 재미있어요. 납뽀다 하면 납뽀의 아이덴티티가 생기거든요. 납뽀 다섯 가지 특성이 있어요. 벼슬로 대표되는 문(文), 시간들 잘 알려주는 신(信), 날카로운 발톱에서 보여지는 무(武), 작을 맞아 물러서지 않는 용(勇), 새끼들에게 모이를 찾아 먹이는 인(仁)까지. 사람이야 다섯 가지를 지니면 되는 거지요. 나는 닭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어요. 해마다 번져 일어나 우는 닭처럼 늘 남보다 앞서 개척하며 살았어요. IT산업 초창기 ‘산입은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는 구호도 만들고, 안배론 분야도 없어. 영화, 문학, 불문학, 기호학까지.

또 닭이 먹이를 먹으려면 요란하게 패배치는 것처럼 열심히 패배했지요. 젊었을 때는 논쟁도 많이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손해 나는 일은 안하러 논쟁도 안하지만, 7천만 명이 자식들을 해바라기 가지고 사는 것만 늘날처럼 자연을 알고 인공적인 삶을 사는 상황에선 아주 즐거운 일이에요. 외로운 인간에게 이런 전통은 즐거운 것이고, 한중일을 묶는 가장 큰 문화 코드로 작용하기도 해요.

— 납뽀 해를 맞아 후배들에게 주실 메시지는.

닭은 두 가지 점에서 교훈을 줘요. 닭은 때를 안다는 게 첫째지요. 무엇보다 젊은 사람들이 국제감각과 문명의 이해를 안았으면 해요. 새벽인지 밤인지 내뽀인지 분간하는 닭의 술기를 배워야지요. 세계가 지금 몇 시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둘째는 조류언어에 남지 못하는 닭처럼 실체 말고 제중을 좀 듣고도 길들여진 것에서 벗어나 야생의 새처럼 비상하는 연습을 했으면 해요. 때를 알고 길들여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힘차게 날아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싶어요.

— 일본의 한류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온사마 불은 도대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이지요.

본문 **차림준비위원장**
대답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지금까지의 대중문화는 주로 10대들의 문화였지요. 할리우드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실리관행과 할리우드의 합성인 실리우드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에 의한 대형 폭력물이나 자극적인 것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 건조하고 유희적인데다 탈진됨, 탈문화적인 현상이 지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첫사랑의 순정을 연상시키는 아련하고 동화같은 깨끗한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자 30대나 40대, 50대 주부들 사이에 그동안 분해 있던 큰 덩어리, 순수한 무엇인가를 찾던 갈망이 터진 것이지요. 유희공간이 폭발했다고나 할까.

물론 여기에 NHK라는 전국적 미디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NHK는 일본의 사회 트렌드를 바꾸고 현대의 신화를 만들어요. 우리는 TV드라마가 인기 왔어도 그걸로 끝이지만 일본에선 TV드라마가 기록적이 돼 국가 전체의 커다란 흐름을 바꿔요. NHK가 ‘산생구미’를 방송하면 교토의 상권이 바뀌고 판매량이 달라지고, ‘실라 로드’를 내보내면 젊은이들 죄다 실크로드로 여행을 갑니다. ‘겨울 연가’ 불도 그 일화예요.

일본을 움직이는 건 NHK와 동화화사인



면 군국주의가 되고, 일본사람들은 또 폭력과 사실을 혼동해요. 그러니까 아직 전쟁체가 유지되는 것이고.

또 내가 ‘혹소지향의 일본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에선 워낙 일본화해서 받아들여요. ‘겨울 연가’를 ‘후유노(겨울의) 소나타’라 하고 바꾼 것도 그렇지요. 매를리들 뜻

요, 일생동안 참고 자기 인생은 남편이 정년퇴직한 황혼에 가서야 찾았다고 생각하면 중년여성들에게 ‘겨울 연가’가 있을 만한 여성성을 일깨운 거예요. 신데렐라가 마법의 힘으로 가상의 마자와 옷을 입고 왕자의 파티에 간 것처럼 참춘을 잃은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16세 소녀가 돼 가슴을 울림거리게 하면서 있었던 여성성과 사랑을 찾는 거지요.

일본 남편들도 처음엔 뭐라고 했든 상대가 이웃집 남자가 돼 일본사람도 아닌 한국의 영상속 주인공인대다 잔뜩 빠져서 여성적 매력이 없던 아내가 신혼 패처럼 부드럽고 생기나고 삶에 반짝이는 열광을 하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도와준다고 해요.

— 한류비밀로 일본사람들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한국인과 한

국성품에 대한 호감도 높아지고요. ‘온사마’만 붙여온 워낙 잘 팔린다고도 하고요.

10대들은 구태력이 없는 데 비해 주부들은 구태력이 높으니 광고가 되고 장사가 잘돼 CF, 출판, 액세서리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많이 더 확산됐지요. 10년 불황 끝에 타지는 비바에 손해를 본 사람이 없어요. 일었던 일본의 소비문화도 녹고, 게다가 일본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었대요. 전연 MK텍시 운전사들이 일본인 행세를 했는데 요즘엔 몸치 아니요도 한국사람이라고 밝히고, 관광객들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우가 달라진대요. 이런 일은 몇 십 년의 군데로 타민족을 정복하거나 몇 조원으로 시장을 점령해도 불가능한 거지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으로 문화의 힘, 대중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여성 파워가 강해진 것의 일단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 중요한 건 이런 한류가 일시적인 것이 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는 걸 텐데요.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요.

화상의 마자가 호박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일본 여성들이 배웅준 바를이 깨진 뒤 지키는 여전히 나이 많은 애 엄마이고 첫사랑과 온사마 같은 백기사는 없다 싶으면 실배웅준이지만 실은 연혼자가 일본에 없는 일본적 감성을 만든 거예요. 공과대학생을 많이 길러놓자 건설 붐이 일어난 것처럼, 드라마도 많이 만들다보니 호도한 것이지요. 역사란 언제나 우연의 연속인데 우리의 약점이란 저질 텔레비전극이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 수준 높은 것이 됐고 그게 일본에서도 선풍력을 얻은 셈이지요.

—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성들이 할염지를 찾아 한국까지 오고, 배웅준을 보기 위해 공항에 몰려드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본 주부들은 평소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다니다면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

‘한류’ 지속성으로 승화시켜야할 과제 남아 대중문화 양성 위한 아카데미즘 부활해야

NTT, 컴퓨터회사인 NEC 등 3N인데 NHK는 특히 안와의 주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일본 드라마와 다른 ‘겨울 연가’를 방송한 것이 사회 변화에 움직이지 않고 섬처럼 떠있던 주부들의 감성과 본능을 자극, 유희산을 활화산처럼 만든 것이지요. 따라서 이런 베트남,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한류는 달라요. 그곳의 한류는 서방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폐쇄주의 사회가 한국사회와 자유로워지면서 개방주의적인 사회를 보면서 느낀 경외지인 이런 그게 아니거든요.

— 전국 방송이고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꼭 그런 불이 생기는 건 아니지요. 공공 방송들의 시청률은 우리가 훨씬 높아요. CTV라고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 바다를 건너가니 하지는 않아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오마쓰리’ 쪽 축제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사람들은 누군가 오마쓰리를 내고 혼돈은 것을 보면 최면에 걸려요. 거기에 휩쓸리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요. 집단 속에 완전히 매몰되는 거지요. 때문에 이런 불이 일어나면 격렬을 수 없어요. 그 밖에 있는 감성주의가 가진 히스테리처럼 나타나

하는 연가를 소나타로 단순화하고 후유노 소나타로 복잡하고 ‘후유 쓰나미’라고 하니 까요. 배웅준도 온사마로 줄이고, 이렇게 일본사람은 작은 한 점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 모든 사람이 분위기에 맞춰 호흡을 맞춰요. 온사마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도 그런 것이지요.

‘겨울 연가’의 경우엔 또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어요. 다름도 많았고, 스토리나 연기력은 물론 음악이나 영상도 참 아름다웠던 그건 프로듀서의 힘이지요. 드러난 건 배웅준이지만 실은 연혼자가 일본에 없는 일본적 감성을 만든 거예요. 공과대학생을 많이 길러놓자 건설 붐이 일어난 것처럼, 드라마도 많이 만들다보니 호도한 것이지요. 역사란 언제나 우연의 연속인데 우리의 약점이란 저질 텔레비전극이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 수준 높은 것이 됐고 그게 일본에서도 선풍력을 얻은 셈이지요.

—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성들이 할염지를 찾아 한국까지 오고, 배웅준을 보기 위해 공항에 몰려드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일본 주부들은 평소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 다니다면서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



동문기자 취재수첩

동문기자 취재수첩

자르거나 편집되지 않은 '노컷뉴스'

연일이다. 이때마다 신문과 방송들은 '올해의 10대 뉴스'와 같은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개인들도 각자 저마다 지 내은 1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필자 역시 수많은 기사에 파묻혀던 2004년을 정리해보는데, 이 과정에서 문득 새로운 변화 하나를 느꼈다. 그것은 지금까지 CBS라는 타이틀을 걸고 취재와 방송을 해왔지만 유독 올해는 '노컷뉴스' 기자로 더 많이 인식됐다는 점이다.

'노컷뉴스(notcutnews.co.kr)'는 CBS의 인터넷 뉴스다. 노컷, 다시 말해 자르거나 편집되지 않은 생생한 뉴스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다른 곳에선 접할 수 없었던 채널화된 '노컷만의 뉴스'는 각계각층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鄭東泳(鄭東泳)의 노인 편파 발언이다.鄭의장의 발언은 정치부 기자가 아닌, 말하거면 시민 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CBS의 국민일보보는 젊은이의 시선으로 총선을 바라본다는 취지에서 대학생 출신기자단을 운영했다. 鄭東泳의 발언은 유세 도중 바로 이 대학생 출신 기자단의 일원을 만나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투표 안해]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이 발언이 노컷뉴스를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될 때 노컷뉴스는 새로운 모험을 하나 더 시도했다. 검찰의 수사 브리핑 내용을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한 것이다. 과거 언론들은 정부 부처를 포함한 뉴스 공급자의 정보를 독점한 뒤, 사실상 2차 가공된 정보만을 기사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노컷뉴스가 1차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핑 내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정보의 나눔, 공유의 개념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거의 폭발적



林美鉉
(92년 人文大卒)
CBS 사회부 기자

인 수준이었고 다른 언론사들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언론계 내에서의 파급도 컸다.

이밖에 한 퀴즈 프로그램에서 꼴찌를 올린 파주 문신여고 지관순양의 빛이아이처럼 따뜻하고 감동적인, 때로는 재미있는 기사들을 발굴하면서 노컷뉴스는 포털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기사로 지면해킹했다. 또 8개 포털 사이트의 20개 지방 언론사, 뉴욕 한인 통신사, ETN, VOA 등 다양한 매체들과 MOU를 맺고 뉴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입지를 개척하고 있다.

노컷뉴스의 이 같은 급성장은 일단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한 발빠른 적응력 때문이 가능했다. 지금은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 1일 평균 1천9백60만여 명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 매체가 편집해 놓은 것을 피동적으로 접하기보다는 포털 뉴스를 통해 자신이 필요한 뉴스를 검색해 보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맞춰 포털 사이트를 하는 미디어도 인식하고 한발 앞서 동작했던 것이 주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러한 CBS만의 독특한 컬러가 빛받지 못하지 않았다면, 정보의 홍수를 이루는 수많은 기사들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노컷뉴스도 뜸 수 없었을 것이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공정성 등 기본기가 아닐런지.

우나 급변하는 사회와 내년 이맘때를 가늠할 수 없었지만,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용감하면서도 변해서는 안될 것들은 지켜내는 2005년이 되었으면 한다.

'김선일 피살 사건' 수수께끼로 남아

선배 기자가 한 말이 있다. "기자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시인이다." 그는 기자로서 사회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모순을 찾아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라고 했다.

외교부를 출입하면서 필자 자신도 지난해 수많은 사건을 다루었고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때 이직도 정의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다. 어쩌면 기자 생활 내내 의문을 풀지 못할 지도 모른다. 바로 '김선일'에 관한 사건이다.

2004년 6월 21일 새벽이었다. 이렇게 알자라 TV에 한국인 젊은이의 '살고 싶다. 죽고 싶지 않다'는 절규가 담긴 녹화테이프가 공개됐다. 그 절규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아직도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유일신과 성전'이란 테러단체는 "한국이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처형하겠다"고 협박했다.

깜짝없이 자다 말고 새벽 출근을 했다. 이미 다음날짜의 모든 기사를 마감한 상황이고 소위 '돌란'이라는 예정에 얽린 신문을 발행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도 머리는 멍한 상태였다. 정부 당국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관비로 법무부 지역 종교지도자들을 통해 협상을 시도하는 등 구명운동에 들어갔다. 다음날 오후까지만 해도 외교부 내부에는 '살아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22일 밤

을 설명하는 진인함을 드러냈다.

더 큰 분노와 의문은 김씨가 왜 테러로 갔고 김씨의 소속회사는 왜 그렇게도 소홀히 직원을 관리했을까 하는 점이 확인되면서 생겨났다.

김씨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이라크로 가지 않았다. 그는 선교를 목적으로 '이라크'의 성지인 이라크를 찾는 사위들 중 한 명이다. "이라크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겠다"며 가장 공격적 선교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했다.



朴榮煥
(97년 社會大卒)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김씨는 "한국인을 상대로 테러 협박이 임수했다"는 대서판국의 출국 제의도 거부했다.

'전쟁'과 '종교' 뒤에 도사린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돈'이다. 김씨 소속회사인 오우정기는 미군을 상대로 군납을 하면서 한 달에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직원들에게 준 월급은 고작 2백만원 수준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납치된 시점이 바로 테이프가 공개되기 무려 20일 전인 5월 31일이었는 것이다. 오우정기 김진호 사장은 그러나 김씨의 피사자 실을 미군측은 물론 한국 대서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일이다.

한국 대서판과 이맘때로 20년전 활동한 '배대량'이 나갔던 국가정보원이 과연 납치 사실을 확정한 이후에도 대서판을 정부 직원들을 만나서 어떻게 더욱 그렇다. 여기에 미국의 APIN이란 통신사가 김씨 테이프를 확인한 이후에도 대서판에 한국에 알리기는커녕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이렇듯 김선일씨 사건은 깨끗하게 마무리된 구석이라면 찾아볼 수 없다. 이라크 대서로 근무하다 돌아온 귀국한 任佐幸 前이라크 대사는 기자에게 "김선일씨 사건은 슬픈 정도가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필자로서는 여기에 '외로 그 자체'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김선일이 조사되고, 국회도 나섰지만 의문은 풀린 게 없다.

가공되지 않은 1차 정보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정보 공유의 개념 현실화

통해 알려지면서 총선 내내 이슈가 됐고, 결국鄭의장은 선거대책위원장직과 비례대표를 반납했다. 1인 미디어 시대, 1인 블로그 시대에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경우라고 하겠다.

또 다른 사례는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된 기사이다. 당시 노컷뉴스를 통해 盧武鉉(盧武鉉) 대통령 후보 캠프가 삼성으로부터 모두 30억원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로써 盧武鉉(盧武鉉) 후보 대선자금에 한나라당 李壽根(李壽根) 재계 자금의 1을 넘겨 그 뒤로 돌리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노컷뉴스는 본의 아니게 盧대통령을 자르기 위한(?) 뉴스 아나운서의 의욕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후일 盧대통령은 CBS 창사 50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CBS가 가장 큰소리를 칠 때 솔직히 겁이 없었지만, 비판할 줄 모르는 언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CBS가 사서로써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라크 인질납치 피해는

37개국 2백90명

필자가 인지에서 김씨의 사체가 발견되면서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김씨는 그날 아침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불과 이틀만에 사건은 허탈한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정부도 언론도 '파닉'에서 벗어나서 사건의 뒤에 숨은 '행'을 찾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에 걸쳐 이라크에서 발생한 외국인 대상 인질납치는 모두 1백10건으로 37개국의 2백90명이 피해를 봤다. 국가별로는 이라크가 15개국으로 1백22명, 파병하지 않은 나라도 22개국에 1백68명이나 됐다. 방정하게 보면 김선일씨도 2백90명 중 한 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통계만 보면 통계 불가능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간 게 잘못이라는 정부의 변명도 인리가 없지는 않다. 정부는 그러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김씨의 절규를 보고도 "테러 단체와 타협할 수 없어 파병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원칙

하제의 문

서예가 南田 元仲植동문

서당 열어 어린이 한자교육 나서

한글전용화가 대체로 이루어져 한자가 실 곳을 잃고 있다. 국어의 한 축을 이루는 한자를 더부사하면서 생각을 표현하는 어린이들이 도태되고 지속적인 조어와 외래어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언어의 저질화는 정신의 황폐화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강철책은 무엇일까? 서예교육을 강조시키는 것. 서예가 南田 元仲植(68년 農大卒)동문이 그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 강원도 고성군 그의 집에 서당을 마련, 5~6세 어린이에게 서예를 가르칠 계획이다.

元동문은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한글이 보급되기도 전에 한글전용화가 급하게 진행돼 오히려 국어가 죽어가고 사교의 감각이 약화되고 있다"며 서당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보통은 한자를 배우면 이해가 빠르다. 5~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시기에 기본지식을 가장 빨리 흡수할 수 있고 그 배움이 평생을 가기 때문이다. 서예의 교본으로 쓰일 소학, 명심보감 등의 교본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또 **글씨**도 쉽게 익힐 수 있다. 한자는 일종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元동문은 敎育 機關에서 선생의 수재자로 국내 서단을 이끌고 있는 중추 서예인이다. 농화와 재하시절 敎育에서 사사 후 네 차례 국전에 입선하고 대한민국예술대전, 동야미술제, 한국서법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

서단에서 그는 서예가의 표본으로 통한다. 그의 인간적인 성품 때문이다.

대학 4학년 때 敎育 선생이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 되자 졸업 후 스승을 돌볼 여유가 있는 직장을 찾았다. 그리고 서상을 하직할 때까지 8년간을 지극 정성으로 보냈다. 그 8년 기간동안 敎育 선생이 좌수석으로 다시 북

을 들 수 있었던 데에는 元동문의 보살핌이 있었다.

배움의 자세도 치열했다. 書法은 익혔지만 정작 중요한 '글'은 모른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도언명이 낙향해 귀거래사를 썼던 마흔 셋의 나이에 나도 배려한다.' 그러나 발음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 게



획했던 시간이 한 해 두 해 흘러 나이 오십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세속의 그나름을 풀 수 있었다. 강원도 인제의 미산 자락으로 홀로 들어가 10년 동안 글공부에 매진했다.

지난 2000년 늦가을이 가진 첫 개인전, 敎나라와 國나라의 甲冑, 鎧鎧문자와 추추 전국시대의 敎문과 주문 그리고 진, 한, 전, 예, 팔분을 두루 섭렵해 자기만의 서체를 일구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갑자 중이에 금분으로 쓴 책에서 '사경연화경전경(寫經蓮華經變圖)'은 조형성이 뛰어나 서예를 현대예술로 재창조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元동문은 현재 3월 개강을 앞두고 집에 마련한 서당, 전서실, 아이들이 묵을 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우선 서를 서실 제자들의 아이들이 가운데 5명 정도를 2년간 데리고 살면서 가르칠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면 인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도 매주 토요일 서예를 가르치고 싶고요. 스승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게 많지만 스승의 뜻이라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요."

Noblesse Oblige

세종병원 朴永寬이사장

'국내 병원 중 최단기간 심장병 2만회 시술, 심장병 해외 어린이 2백명 무료수술, 100% 성공'

최근 부천 세종병원에 쏟아진 언론의 찬사다. 朴永寬(64년 醫大卒)이사장은 "근부서간의 탄탄한 팀워크, 최선의 장비 도입, 의료진들의 부단한 자기계발이 이번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해외 어린이 2백명 무료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 준 것은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한국심장재단, 순복음교회 등 사회단체에서 함께 해준 것"이라며 자신에게만 조명을 되돌리는 생각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국내 어린이 환자도 많은데 왜 외국 어린이를 돕는 것일까? 그는 "여러 사회 단체의 지



첫 번째로 수술받은 중국동포 강수철 어린이와 함께

이들을 희망하게 하도록 보내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다. 돈이 없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고 6년 뒤 다시 찾아왔으니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뒤였다. '처음 왔을 때 내 돈을 들여서라도 수술을 해야겠다'고... 뒤늦은 후회였다.

기쁜 기억도 있다. 대혈관전위증을 갖고 태어난 생후 3일밖에 안된 아이, 90년 당시 국내에서는 그렇게 갓난아이를 수술한 적이 없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몇지개 성공, 아이의 부모는 이름을 '새콩'이라고 지었다.

최근 심장병 발병률에 대한 질문에 朴동문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선천성 심장병은 줄었지만 식생활의 변화로 후천성 심장병인 관상동맥 질환이 늘고 있다"며 小食多動하는 생활습관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유해식품 부인이 겪은 일화 하나를 들려줬다. 어느 날 동네 어머니들이 집을 방문해 그의 부인에게 '우리 아이에

외국 심장병어린이 2백명 무료수술

원으로 국내 환자는 출생 즉시 대부분 수술받을 수 있다"며 "과거 미국 등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심장병 어린이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베풀 차례"라고 말했다. 세종병원의 지난 16년 동안 중국 1백31명, 러시아 34명, 베트남 28명, 몽골 7명 등 11개국 어린이들에게 인술을 펼쳐왔다.

朴동문은 과거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이사장을 6년간 맡았을 정도로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흉부와 좌우 전방으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자주 접하다보니 자연스레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그 중 기억에 남는 두 아이가 있다. 79년 한양대학교병원 근무시절, 심심정맥결속증

게 간식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고 갔다. 한국에서 그랬듯 동네 아이들이 놀러오면 으레 맛있는 것을 많이 가져다주었던 것뿐인데... 당혹스러웠다. 그들의 설명이 독일에서는 간식을 절대 먹지 못하게 교육하고 둘은 군것질을 하다 걸리던 크게 혼을 낸다는 것이다.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젠 '근 먹어야'라고 말할 대입이다. 우리 나라 소이 비만율이 34%나 되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들 잘먹네'하며 좋아하는 부모들이 많은 게 안타까운 일이죠. 올 한 해 '안 먹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南)

서울대 가족

姜吉云 前수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공분야 다른 차남·손자와 함께 3대가 동문

한집에 불교·기독교·천주교 서로 '조화' 이뤄

아파트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한쪽 벽에 수많은 미소를 띠며 멋진 턱시도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느 다정한 커플(?)의 결혼기념 사진이 걸려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데, 어느 촌부부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姜吉云(54년 文壇大學·前수원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동문과 부인 姜美蘭(前사)가 금혼식을 기념해 찍은 '아주 특별한' 결혼사진이었던 것.

"저 사진만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 3시간 동안 이 컷, 저 컷 찍는데 얼마나 쑥스럽는지. 기념행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뵈이 가만 놔두지 않아서 찍게 됐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부터 일요일은 만사 제쳐두고 아이들과 함께 극장, 공원, 전람회를 구경하며 가족나들이를 가서 그런지 일요일마다 자녀들도 손자와 함께 놀러와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한데 말입니다. 또 두세 달에 한번씩은 세 아들 내외와 딸 내외, 그리고 친할처럼 키운 처조카 내외 가족이 전부 모이는 데다 연말이면 꼭 용평리조트 등 스키장에서 가족 단합대회를 열기 때문에 기념행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43년간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해온 姜吉云동문을 비롯해 차남 姜明憲(76년 自然大學·80년 社會大學·단국대 상경학부 교수)동문과 둘째 며느리 吳世蘭(97년 大學院卒)동문은 전공분야는 달라도 모두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다. 姜明憲동문의 장남 姜政旭(04년 法大入)군은 법학도로서 학업에 총싹이라, 자신이 직접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아리 활동에 열중하리라 비단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앞줄 姜吉云동문 내외, 뒷줄 좌로부터 두 번째 姜政旭·姜明憲·吳世蘭, 맨 끝 姜政旭동문

姜吉云동문의 서울대 가족

차 남
姜明憲(80년 社會大學)
며느리
吳世蘭(97년 大學院卒)
사 위
姜政旭(83년 醫大卒)
손 자
姜政旭(04년 法大入)

합격남도 정경원에서 태어나 1946년 월경단신으로 월남한 姜吉云동문은 경기도·덕수상고 교사생활을 비롯해 육군사관학교·광주대·덕성여대·충남대·수원대 등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다. 빈틈없는 삶 없이 달리느라 이제는 느긋한 황혼을 지내도 되련만 83세의 나이에도 姜吉云동문은 매일같이 새벽 1~2시까지 잠깐 않고 서재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선친께서 독립운동 중 옥사하시면서 제 맘속에 딱 두 가지 목표가 생겼더군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연구해야겠다는 것과 일본을 학부으로써 이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도 처음 20년 동안은 독학으로 우리 나라에 남아있는 40여 가지 언어들을 익히고 어휘를 비교 분석하느라 정신 없이 공부한 기억밖에 없어요."

국어학자이자 우리 나라의 유망한 비교언어학자인 姜동문은 그동안 잘못 알려진 우리 민족과 한국어의 뿌리를 밝히고 알리는 데 헌신했으며, 지난 1995년 발간된 '한일 고대관계사의 정점'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일본 학자들이 거짓 주장한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는데도 앞장섰다.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응용화학분야 연구원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펼치지 못해 明憲이에게 자연과학을 전공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76년 지질과학과를 졸업했으나 당시에는 크게 각광받지 못해 아들은 원래 꿈인 경제학도의 길을 걷게 된

거주.

차남 姜明憲동문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LG텔레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민간지의 경제분야 칼럼·논단·좌담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향력 있는 경제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丁鐵毅氏の 유머감각과 후배들의 어려운 사정까지도 지나치지 않는 성격 때문에 주위에는 항상 그를 따르는 선수가 많다고.

뉴욕주립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있던 중 같은 대학 유학생이었던 姜明憲동문을 만나 결혼한 吳世蘭동문은 가정주부로 있으면서도 일요일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와 안락원을 돌아다니며 국내 사회복지의 개선점과 실태를 조사하고 규명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 97년 모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 현재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맹활약하고 있다.

안과질환인 녹내장과 백내장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진 시위 姜政旭동문은 어린 적부터 미술감각이 뛰어나 대학시절 와대·간호대 학생들로 구성된 미술부에서 전시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상담과 무료검진, 개안수술을 실시하는 한국실명예방재단 총괄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姜吉云동문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느라 자주 못 올리지만, 놀러올 때마다 뭇 손길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게 있으면 똑똑 고치는 사람이 다들 아닌 시위"라고 말한다.

한편 姜吉云동문 가족의 특징 중 하나는 전공분야가 다르듯 종교도 제 각각이라는 점. 한집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공존하지만 불협한 점은 없다.

"우리 집 가훈이 첫째 성실하고 정직할 것, 둘째 늦은 시에는 반드시 집에 전화해서 누구와 있으며, 몇 시까지 들어왔다고 통보할 것,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이正道를 지키며 자유롭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이론 것 같습니다."

끝으로 姜동문은 "그저 새해에는 현재 정리중인 단행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한 해도 건강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表)

“선배들과 하나되어 학교사랑 키워야죠”

개교 이래 첫 **女총학생회장** 국문학과 **政和** 양

모교 최초로 지난해 11월 30일 여성 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5일간 진행된 제48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35%의 득표율로 선출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학년 **政和**(본명 柳政和)양을 만나 앞으로의 교무와 학생회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선거 당시 **상징과 함께 당선** 소감 한마디.

“학생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약사항을 내세운 것도 중요했지만 선거본부 후원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펼친 것, 학우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아 저기 선출된 것 같습니다. 뽑아준 학우들에게 감사하고 선거 기간 중

에 내세운 공약사항들을 성실히 실천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생회와 재학생간의 관계**는.

“현재 학생회 위기관에 대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저조해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생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동창회와 학생회와의 관계**도 중요한 텐데.

“일반 학생회와 재학생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동문들끼리 어울리는 것 같고요, 저 공약

사항 중에 학교 발전기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많은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창회에서 이런 발전기금에 대한 투자를 좀더 늘려주길 바라며, 앞으로 서로 학교에 대한 애정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는 관계가기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동창회 회원이 될 테니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서울대 폐지론**을 비롯한 **서울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벌주의에 대한 문제 의식에 의해 서울대 폐지론이 사회적으로 서편된 것이죠. 학벌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



의할 수 있었던 실례로 서울대가 폐지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없어진다 해도 다른 대학들이 1, 2위를 다투면서 지금의 대학입시 경쟁은 그대로 존속할 것이기에 이 문제는 서울대 하나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관련돼 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결과적으로 학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 대안이 서울대 폐지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姓)**을 빼고 **‘政和’**라는 이름만 쓰시지.

“2학년 때 페미니즘과 관련된 세미나를 통해 양성평등이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나의 일상을 삶속에서 존재하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나의 일상을 바꿔나야 한다고 판단해 ‘부모성(姓)’ 같이 쓰기’ 일환으로 시 작한 것입니다. 다만 부모의 성을 동시에 다 쓰면 어감상 이상하기 때문에 이름만 쓴 것이죠.”

—**앞으로 계획**은.

“학생회라는 것은 학우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

모교 소식

과학분야 세계 42위에 선정

英 ‘더 타임스’ 대학평가팀 분석

지난 12월 10일 영국 ‘더 타임스’는 모교가 과학분야에서 세계 42위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의 대학평가팀은 최근 88개국 1천3백개 대학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과학분야 세계 1백대 대학을 조사한 결과, 모교가 42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65위를 각각 차지했다.

1, 2위는 영국의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가 나란히 차지했다. 영국은 임페리얼칼리지 10위에 올라 10위권에 편 3개의 대학을 진입시켰다. 미국은 하버드대(3위), UC버클리대(4위), MIT(5위), 스탠퍼드대(6위) 등 6개 대학을 10위권에 올렸다.

한편 모교 鄭永濤총장은 최근 ‘더 타임스’의 대학 평가에 관해 “상위 그룹에 속한 대학들이 상당부분 영국의 교육에 영향을 받은 대학이기 때문에 ‘더 타임스’의 편견 혹은 영국 교육에 영향을 받은 대학

과학분야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대학
1	케임브리지대(영국)
2	옥스퍼드대(영국)
3	하버드대(미국)
4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미국)
5	MIT(미국)
6	스탠퍼드대(미국)
7	도쿄대(일본)
8	프린스턴대(미국)
9	캘리포니아공과대(미국)
10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영국)
11	하이델베르크(독일)
12	매일경대(중국)
13	코펜하겐대(덴마크)
14	호주국립대(호주)
15	에콜 노르미탈레(프랑스)
16	하임델베르크대(독일)
17	오스카로 콜로니아르대(러시아)
18	인도공과대(인도)
19	싱가포르국립대(싱가포르)
20	대만국립대(대만)
21	서울대(한국)
22	KAIST(한국)

이 좋다는 자신감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게 생각된다”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동경대를 비롯한 두세 대학을 제외하고는 서울대가 아시아 어느 대학보다 못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삼아알미늄 韓회장 부부

모교에 암연구비로 88억 기부

지난 12월 17일 모교 병원에 의명의 7대 부부가 암연구 기금으로 88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 2만주를 전달해 화제가 됐는데, 최근 이 기부자가 삼아알미늄 韓相龍회장 부부로 밝혀졌다.

이들이 모교 병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6년 韓회장 부인이 모교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위암관찰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韓회장은 “후사나” 하는 생각으로 1999년 검사를 받았다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다행

히 부부 모두 조기에 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은 뒤 현재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조기 진단에 따른 암의 기쁨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고 싶다”고 기부의사를 밝혔다. 또 “평생 모이는 재산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감시의 마음으로 조용히 암 진단과 치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며 끝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거부했다.

鄭八道·禹南均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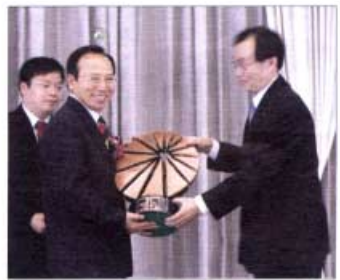
공대 발전공로상 받아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은 지난 12월 21일 관악캠퍼스 엔지니어 하우스에서 공대 교수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공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코리아랜드컴퍼니 鄭八道(1기 AIP, 문화 회회장·관악회 이사·사진 左)회장과 LG전자 DDM사업본부 禹南均(72년 文理大卒)사장이 제16회 발전

공로상을 받았다.

이 발전공로상은 지난 1989년 공대 교우연구재단 이사회의 鄭永濤(43년 京城大卒)·前교대총장(회장) 등 문·이 기부한 3천만 원을 기금으로 하여 공대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내외 인



사에게 수여해오고 있다.

해부학교실 李旺載교수 英 ‘올해의 의학자’상

최근 비타민C 전도사로 널리 알려진 모교 의대 해부학교실 李旺載(82년 醫大卒)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가 중 하나인 영국 국제인명센터(IBC)로부터 2005년 ‘올해의 의학자’로 선정됐다.

모교 변형측은 李교수가 그동안 비타민C 연구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해 온 데다 최근에는 비타민C가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계항공 李建雨교수 ‘CAD저널’ 편집장에

최근 모교 공대 기계항공공학부 李建雨(78년 工大卒)교수(사진)가 美MIT에 프라비칼라카스 교수, 네덜란드 델프트대 호르바스(I. Horvath)교수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 자동설계(CAD)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CAD저널’ 편집장으로 선임됐다.



CAD저널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복잡한 제품을 컴퓨터를 이용해 설계·생산하는 캐드캠(CAD/CAM)분야를 다루고 있

며, 인용도(impact factor)면에서 1백6종의 각종 기계공학 학술지 가운데 12위에 속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

李교수는 연 10회 발간되는 ‘CAD저널’의 편집장으로서 학술지에 실릴 논문은 주제와 선정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보내온 논문을 1차적으로 검토해 심사위원 평가(Review)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대 '과학·정책과정' 인기

교육대상 검사·병원장 등 다양

자연과학대학(학장 吳世正)이 개설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위한 '과학 및 정책 최고연구과정'이 최근 인기를 더하고 있다.

일주일여 2년 6개월간 운영되는 이 강좌는 지난 2002년 시작돼 현재 6기까지 1백5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기업체 사장, 대기업 임원, 검사, 국회의원, 병원장 등 그 수감 대상도 다양하다.

강좌를 운영하는 교수들도 학생들의 열의에 놀란다. 물리학부 김修憲교수는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인정을 찾은 사람들이수록 과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 같다"며 "솔직히 처음 강좌를 만들었을 때는 몇 번 듣다가 결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했었다"며 현재 참석률이 상당히 높다고 전했다.

수업내용은 기초과학의 이해와 소위 IT, NT, BT 등 첨단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경영 및 정책 분야 등 약 50개 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초기 우주와 빅뱅이론, 나

노과학, 컴퓨터 구조와 발전방향, 뇌의 신비와 신경과학, 신약개발 과정과 전략 등 신문에 한면씩 보던 과학지식을 75분에 걸쳐 제대로 들을 수 있다. 또 천체와 생명의 기원, 한반도의 지각변동, 염노화와 날씨 이야기, 암호학 등

*기초과학도 상당수 있다.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과나 상경계 출신들에게도 과학은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터득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최고권위자들을 망라한 교수진을 구성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강사는 前과학기술부 장관인 물리학부 權熙(58년 文理大) 명예교수, 孫 郁(67년 工大) 삼성인력개발장, 체세포복제전문가인 수의학과 黃美卿(77년 聯大) 석좌교수, 생명과학부 崔在天(77년 自然大)교수, 李瑞衡서울시장 등 초호화 군단을 자랑한다. (문의: 880-6251)

인사

자연대 吳世正학장



지난 12월 16일 자연과학대학장에 물리학부 吳世正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吳世正은 1975년 문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1984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삼성 이진희 장학재단 이사, 한국인공학회 편집장, 한국물리학회 협회간사, 모교 자연대 기획연구실장을 등을 역임했다.

李連坤행정대학원장



지난 12월 6일 행정대학원장에 행정학과 李連坤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李連坤은 1977년 공대 공업교육과를 졸업한 후 1991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해 중국 북경행정대학원 객교수,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국협상학회장을 등을 역임했다.

李鍾贊입학관리본부장



지난 12월 6일 입학관리본부장에 자연대 생명과학부 李鍾贊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李鍾贊은 1977년 자연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1986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해 자연대 수의예과 학과장·교무부학장·자연과학부장, 농촌진흥청 농업유전공학연구소 농업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모교 鄭雲燦총장이 지난 12월 6일자 대학신문에 '서울대생에게 띄우는 편지'를 실어 재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일깨워주고 강조했다. 동문 여러분께도 참고가 될까해서 그 전문을 전제합니다. (편집자주)

서울대인은 왜 당당하지 못하나

모교 鄭雲燦총장의 '서울대생에게 띄우는 편지'

지난 늦봄 무렵 '서울대 폐지', '서울대 학제 폐지' 등 '서울대 폐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모 TV 방송 프로그램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회자가 한 서울대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대생으로서, 서울대 폐지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의 답이 궁금했습니다. 분노를 병행한 논리로 정리하여, 폐지론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인데? 비서울대인을 배려한 사려깊은, 그러나 기승을 피고난 연변으로 반대의견을 전개한 것인데? 이도 저도 아니고, 폐지론이 나오게 된 이른바 '해법'에 대해, 자신만의 해법을 역제안할 것인가?

그런 그 학생의 반응은 내 예상과 사뭇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머뭇머뭇... 짧지만 긴 침묵이 이어지다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출처 생각해보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답일까? 진부하리나. 왜 전무당 만부당하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두려웠을까. 나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생에게 자긍심 하나 심어주지 못한 총장'이라는 자리가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신명과 반성의 순간이 지나고, 나는 내 자신의 학창시절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즉 1960년대 후반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대학 재학 4년간, 학기 중 휴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비판, 부정선거 규탄, 3선 개헌 반대 등, 격렬한 네모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학교공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만의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혼자서 새뮤얼슨(P. Samuelson)의 '경제학', 허스(H. R. Hicks)의 '사회구조론', 최문환의 '민족주의 전개과정' 등 사회과학 서적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친구들도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었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독학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난 관을 부여받고 새로운 도전거리

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우리들의 가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대인이라는 자긍심이었습니다. 서울대인은 한국의 근대화에 주역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자식감, 서울대라고는 한결같이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대학이 된다는 자부심이 우리들의 학구열을 무적질했습니다.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했다는 의협심과 열정으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거리를 담당할 활보했습니다. 폐기가 하늘을 저러면 우리는 '젊은 사자들'이었습니다. 그 때 어느 누가 서울대 폐지론 같은 해파리같은 질문을 받고, 머뭇머뭇하든, '생각해보겠다'고 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내심 없는 자긍심은 사



이창훈
이창훈교수

실 허허허! 짝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 유학 초기에 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가보니, 그들은 세계의 대륙을 아메리칸, 비엔, 팔리핀, 타이완, 서부 유럽대, 일류 일본대학 등으로 분류하면서 서울대학교는 미분류 외국대학(unclassified foreign school)로 소개했습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서울대 교수들이 쓴 연구논문은 이미 세계 35위여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사를 배출한 역사가 약 25년밖에 안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이는 차라리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더 타임스'는 서울대를 1백18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기운 없이 되어갈 것입니다. "서울대가 진짜 1백등도 안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평가 요소들을 들여다보

기로 합시다. 5, 6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동료평가(peer review), 즉 세계 1천3백여 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세계 63등이라고 합니다. 교수들이 쓴 연구논문 그리고 국제 세미나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한 것이니, 그간하면 서울대로 편향은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반면에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는 점이나, 외국인 교수와 비율이 낮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종합점수는 1백18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 조사에서도 의미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한 평가기준만을 놓고 보면, 서울대는 세계의 상위권 대학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입어, 나는 서울대학교가 한 단계 더 높은 평가를 받도록 도전하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사회요직을 독식한다고 비판합니다. 교육투자에 비해 성과가 너무 낮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만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반성할 점이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실상은 왜곡하면서까지 우리의 몸을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충분히 해왔고, 뛰어난 교수진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실상은 왜곡하면서까지 우리의 몸을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충분히 해왔고, 뛰어난 교수진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실상은 왜곡하면서까지 우리의 몸을 낮출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나는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충분히 해왔고, 뛰어난 교수진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인들이! 자신을 서울대인으로 명예롭게 각인하십시오. 서울대학교는 세계 수준의 일류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조국의 앞날을 위하여 한국을 세계의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마십시오. 자긍심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입니다. (문의: 880-1354)

진로취업센터

여학생 진로과정 개설

모교 진로취업센터(소장 尹善熙·산업공학과 교수)는 최근 여학생을 위한 진로설계·멘토링 프로그램

을 개설해 사회 진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학생들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선배로

부터 생생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자신감이 향상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진로 결정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문의: 880-1354)

동 정

수 상



▲林亨(50년) 師大卒·세계시민
시낭송문학연구
회장)=지난 12월 8일 서울
Wayland Baptist
University에서 열린 World
Congress of Poets에서 세계평화
상을 받음.

▲金相運(56년) 文理大卒·前성신
여대 총장)=지난 12월 8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학술
연구부문)을 받음.

▲鄭之頤(64년) 藥大卒·한미약품
부회장)=지난 11월 3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볼
룸에서 KAIST
경영대학원과 테
크노경영자클럽이 공동으로 수여
하는 2004 KAIST 테크노경영대
상을 받음.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2월 2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
국경영인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상을 받음.

▲朴建善(66년) 醫大卒·서울아산
병원장)=지난 12월 16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안전대
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음.



▲安輝着(67년) 文理大卒·모교 고
미술사학과 교수)=지난 12
월 8일 서울 용
산 국립중앙博物
관 대강당에서
제1회 대한민국
문화유산상(학술연구부문)을 받
음.

▲禹義漢(67년) 商大卒·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지난 11월 26일 서
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1
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
훈장을 받음.

▲李相葵(69년) 農大卒·농협유통
대표)=지난 12
월 6일 서울 코
엑스컨벤션홀에서 서경대 경영
대학원동문회가 수여하는 2004
년 자랑스러운 서경MBA상을 받
음.

▲羅善善(71년) 藥大卒·울산대 교
수)=지난 12월
17일 서울 삼성
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과
6개단이 수여하
는 제4회 올해
의 여성과학기술자상(진흥분야)
을 받음.

▲羅敬德(72년) 法大卒·한국선려
사장)=지난 12
월 8일 서울 르
네상스호텔에서
한국자연경제학
회가 수여하는
여거지산업대
상을 받음.

▲金鍾勳(73년) 工大卒·한미파
스 대표)=지난 12월 14일 매일
경제신문과 부즈
앨런해밀턴사가 공동 주최한
'2004 매경 지식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2004년도
매경 부즈앨런 지식경영대상'을
받음.

▲李在奎(73년) 工大卒·한국과학
기술원 교수)=지난 11월 30일 서
울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KAIST 경영대학원과 테
크노경영자클럽이 공동으로 수여
하는 2004 KAIST 테크노경영대
상을 받음.

▲蔡勳(73년) 二大卒·KOTRA
부사장)=지난 12월 16일 서울 조
선평에서 열린 한국정보산업연
합회 주최 '2004년 CIO의 밤' 행
사에서 올해의 CIO상(공공부문)
을 받음.

▲表三洙(74년) 工大卒·우리금융
정보시스템 사
장)=지난 12월
16일 서울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산업연
합회가 주최한
'2004년 CIO의 밤' 행사에서 올해
의 CIO 대상을 받음.

▲鄭秀溶(76년) 社會大卒·빙그레
사장)=지난 11월 30일 서울 인터
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KAIST 경영대학원과 테크노경영
자클럽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2004
KAIST 테크노경영대상을 받음.

▲文聖現(77년) 經大完卒·유한지
발리 사장)=지
난 12월 6일 중
앙대 대학원 국
제회의실에서 중
앙대 경영대학이
수여하는 제12
회 '창 경영인상'을 받음.

▲權泰潤(77년) 保大完卒·전국불
량연합회 고문)
=지난 12월 9
일 서울 잠실 못
데호텔에서 국민
생활체육협의회
로부터 '자랑스
런 생활체육인상'을 받음.



▲尹敬榮(78년) 工大卒·하나로벨
레프 대표)=지
난 12월 7일 한
국농협회로부터
최고 경영자
상과 경영혁신부
문 최우수상을
받음. 또 15일 한국통신학회로부터
통신경영대상을 받음.

▲金彥鎬(78년) 新大完卒·도서출
판 한림사 대표·
인문대학원동창
회장)=지난 12
월 2일 서울 한
국인문화재단에서
열린 한국출판인
회 주최 2004 올해의 출판인상 시상
식에서 공로상을 받음.

▲金承煥(84년) 美大卒·인천가톨릭
대학 교수)=지난 12월 15일 서울
경창동 감동미술관에서 제8회
김중영조각상을 받음.

▲金大鎮(81년) 高大入·한국예수
종합학교 교수)=오는 1월 28일
금호아트홀에서 금호문화재단이
제정한 금호유니버스상을 받는다.

▲金勝敏(19기 AMP·하나은행장)
=지난 12월 21
일 서울 힐튼호
텔에서 한국경영
인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가장 존
경받는 기업인상
을 받음.

▲李康泰(54기 AMP·삼성페스코
전무)=지난 12월 16일 서울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정보산업연
합회 주최 '2004년 CIO의 밤' 행사
에서 올해의 CIO상(유통·서비스
부문)을 받음.

▲李東復(31기 ACAD·코리아폴프
아트빌리지 회
장·국가정책과
정통합회 회장)=
지난 12월 1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세경영인의 밤 행사에서
제24회 연세경영자상(서비스산업
부문)을 받음.

▲申振勳(47기 ACAD·신한은행
장)=지난 12월 1일 서울 힐튼호
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연세경영
인의 밤 행사에서 제24회 연세경
영자상(금융산업부문)을 받음.

▲金順辰(53기 ACAD·농부 대표)
=지난 12월 1일 서울 여의도 래
식민호텔에서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외식산업부문)을 받음.

▲權五昌(55기 ACAD·대한주택보
증 사장)=지난
11월 3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
텔 다이아몬드볼
룸에서 KAIST
경영대학원과 테
크노경영자클럽이 공동으로 수여
하는 2004 KAIST 테크노경영대
상을 받음. 또 12월 7일 서울 힐
튼호텔에서 열린 2004 한국경영대
상 시상식에서 윤리경영부문 최우
수상을 받음.

▲田達亮(2기 AMP·한국수상경
영인 보령시 연
합회)=지난 12
월 16일 정부중
합청사 세종로
발관 국제회의실
에서 열린 제3
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공로부문 경형선보 사장
상을 받음.

▲具昌謀(55년) 師大卒·前여주교
교 교장)=지난
12월 4일 여주
대학 학장에 취임함.

▲田達亮(2기 AMP·한국수상경
영인 보령시 연
합회)=지난 12
월 16일 정부중
합청사 세종로
발관 국제회의실
에서 열린 제3
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안전문화공로부문 경형선보 사장
상을 받음.

이 동

▲具昌謀(55년) 師大卒·前여주교
교 교장)=지난
12월 4일 여주
대학 학장에 취임함.

▲李柱漢(57년 師大卒·시인)=자
난 12월 4일 계
산 공무위원화자
부설가구인 대한
민국 공무원문인
협회 정기총회에
서 일기 2년의

회장에 선임됨.

▲裴在寅(59년)

 法大卒·前대교대
 평생교육원장
 =지난 12월 1
 일 대구 북구 태
 전동 '한별 건
 강·몸짱·장수대

학' 화장에 취임
함.

▲李基俊(61년 工大卒·前교과 총
장·모교 응용화
학부 명예교수)
= 지난 1월 4일
부총리 겸 교육
인정자원부 장관
에 임명됨.

▲安樂勳(61년) 法大卒·LG상업은행
론재단 이사장·
관악언론인회
장·문화 부회
장) = 지난 12월
6일 한림대 일
본학연구소 연구

원에 취임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명예교수·한국 공예문화진흥원 이사장)는 지난 12월 1일 한국 종이접기협회 제 5대 회장에 추

임함.
▲鄭元培(63년 師大卒·前한국고
원대 총장)=지
난 12월 29일
국립서울과학관
영화관에서 한국
과학육단대총
연합회 회장에
취임함.

▲南仲九(64년 文理人卒·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본보 논설위원)는 지난 12월 27일 관훈클럽 신영연 회장이 주관한 국기극이사장에

선임됨.

▲**朴容晟**(65년) 奇大卒·대한상공
회의소 회장·상
대동참회장·본
회 부회장)·지
난 12월 3일 프
랑스 파리에서

연린 국제상업회
의소(IOC) 이사회에서 2년 임기
의 제45대 회장에 선출됨.
▲全琮惠(67년 음太卒·경희대 교

수·피아니스트)
=지난 12월 1
일 경희대 음악
대학 학장에 취임
임한

▲吳巨敦(71년 文理大卒·前부산 시장 권한대행)
= 지난 1월 4일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됨.

▲洪錫炫(72년) 丁大卒·중앙일보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12월 24일 주미 대사에 임명됨.

▲鄭忠始(76년) 工大卒·오미·아코
리아 사장·분회
부회장) = 지난
1월 1일 스위스
에 본사를 둔 오
미아그를 통하여
아지역 회장 겸
CEO에 선임됨.
▲洪錫祥(79년) 社會大卒·보광 측



팔 사장·모교
 기성회장)=재
 난 12월 20일
 (주)보광과 후
 닉스커뮤니케이
 션즈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됨.

▲孫 勳(192년 工大卒·94년 大學
院卒·美國립연
구소 연구원)=
미국 스탠퍼드
대에서 학위(공
학박사)를 취득
한 후 로스아인

모스 미국립연구소(LANL)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최근 카네
기 멜론대(CMU) 조교수로 자리
를 옮김. (hsohn@andrew.cmu.
edu)

▶▶ **행 사**

▲鄭奎主(52년)工大卒·신양문화재단 이사장·관악회 이사)=최근 모교에 신양공학연구소기금으로 10억원을 약정, 지난해 10월(2억1천만원), 12월(3억9천만원) 3개월에 걸쳐 출연을 완료함

▲金在鎭(55년) 法大卒·남양향운 회장=지난 12월 2일 미국 뉴욕 국제학사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음.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언론인포럼 회장
=최근 한국언론재단에서 申慶燮(80년) 自然大卒) 기상청장을 추천 '기후변화

의 실상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 19회 언론인포럼을 개최함. 또 12월 17일 교회 기념으로 펴낸 '신분판대전쟁' 출판기념회를 개최함.

▲宋春鍾(59년 農大卒·前전라남도 농촌진흥원장·前농진청 농기계 연구소장)=최근 세대 풍지와 좋은 사회를 위한 제언 등을 담은 교회 기업 산문집 '사람 냄새나는 세상'을 출간함.

▲金芝烈(60년 美大卒·서울시 미술협회 감사)=지난 11월 30일 학교법인 이화예술재단 이사에 선임된

▲**白忠姪**(61년 法大卒·모교 법학
부 명예교수)=
지난 12월 2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
서 재자들이 주
동이 되어 장년

기년 행사를 개최한

▲ 李丁樞(64년 辛壬戌 辛酉生)

▲李正姬(49년)

 1919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드보르작 서거 1백주년을 맞아
 서곡 '카니발', 첼로협주곡, 교향곡 9번 '신세계' 등으로 콘서트를

▲李洪基(66년) 師大卒·홍성현언

윤기글 이사장
=지난 12월 13
일 서울 63빌딩
엘리베이터에서故
洪性彦(70년 T

대卒·前KBS 보도국장) 동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홍성현 언론상' 제7회 시상식을 개최함.

▲金容德(67년 父理大卒·모교 국제대학원장)=지난 12월 16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미국 하버드대 앨버트 크라이그 교수를 초청 '동

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와 평화' 강연회를 개최함.

▲**鄭東俊**(67년) 行人院卒·한국인
사관리 지합호
장) = 지난 11월
30일 서울 서초
구민회관 대강당
에서 '한국 노인'
의 할 일'이란
주제로 서초노인대학 학생 2백80
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김반디(91년 音大卒·소프라노)
=지난 12월 16일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를 열어 푸치니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부드러운 밤의 아가' 등을 노래함

▲金敬蓮(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총효예실천운동본부 총재)=최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제2차 산악회 행사를

적 기회였다.

▲李 沁(32기 ACAD·한국잡지협 회장)=지난 12월 9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미래 잡지 시장에서의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신뢰'를 주제로 '제2회 서울 국제 잡지 심포지엄'을 개최한

▲金泰完(44기 ACAD·민주평통자문회의 전안시협의회장)=지난 12월 28일 전안시민문화관에서 평양민족예술단을 초청, 송년통일음악회를 개최함

▶▶ 학 속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
을 밟힐 동문.

*하필진(01년 社會大卒)·서현주
 (01년 2001.14년) $x_1 = 18 \quad 22 \text{일 } 14 \text{시.}$

*김 영(92년 人文大卒)·이길순
씨=1월 23일 14시.

— **CONCLUSIONS** —

동창회를 읽기

동창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지난달 동창회보를 다시 펼쳐 드니, 보름 전 부산지부 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 왕림해 주셨던 林光洙 회장님, 許 慶사부총장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재학생 시절 모습을 추억할 때면 늘게 하는, 이제는 저명인사가 되신 분들의 근황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단과대학의 소식이며 여러 분야에서 창조적 소수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자랑스러운 동문들의 소식을 많이 알 수 있어 좋았다.

회보가 가히 동문들을 결속시켜주는 교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 동창회보의 지면을 통해 요즘 부산동창들의 살아가는 일면을 소개하고 싶다.

국내에서 부산은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은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짐작되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지금 부산지부 동창회 사무실에서 각 단과대학별 명단과 주소를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부산지부 동창회는 몇 개의 오프한 동호인 모임을 만들면서 부쩍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마르니에, 산우회, 기우회, 관악회 등의 모임들이 다.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 시절로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추억담을 나누기도 편하고 공감할 쉽게 할 수 있으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에 와 있는 착각에 잠시 빠지기도 해보고, 단과대학별 속성들에 대해 각론을박하는 등 이 얼마나 유쾌하고 환상적인가.

지역발전이 늦후된 탓인지 젊은 후배 동문들의 유입은 아주 드물어서 모처럼 신입의 젊은 동문이 나타나면 무척 반기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근래 부산지부 동창회를 이끌어 가시는 何基成회장님은 "동창회를 마음의 고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마음의 고향론'으로 동문들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 최고의 지성들이 포진



崔義淑
(75년 看護大卒)
대동대학 간호과 교수

해 있는 우리 동문들인지라 협력과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대단하지 않겠는가.

동문 개개인의 면모는 어느 곳에 있어도 뛰어나지만, 공동체의식이나 지역사회봉사 등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남들은 서울대동창회를 잔란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우리 동문들 중에도 어렵고, 소외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새해에는 우리 동문들이 이기적이고 모래알 같다는 인식을 분식시키는,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하는 동창모임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가슴 따뜻한 얘기 담아주길

졸업 후 지금까지 각종 소식지와 학회지, 기타 잡지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들과 같은 오프라인의 정보와 함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가깝해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정보지 등은 이제 얘기를 포기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으니, 과거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만하다.

그리고 공급한 점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아예 기가 질려버릴 정도의 방대한 정보가 쏟아져서 그 방대한에 한번 놀라고, 그 대부분이 별 내용 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라는데 두 번 놀란다.

또한 본인이 받아보는 몇몇 정보지들은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읽어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발자마자 그대로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공과 관련해서 받아보는 학술지 등은 목차와 저자 등만 개략적으로 보고 그대로 책꽂이에 꽂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일을 하다 생각이 나면 다시 찾아보기 좋은 위치에 비치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제목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이제는 무언가 따뜻한 소식이 담겨있는 그러한 소식지가 그림자는 것이다.

본인이 자주 접하는 대부분의 정기간행물이 지나지 못하는 따뜻한 인간적인, 그러한 내용의 소식지가 정보의 홍수시대에 오히려 그림자는 점이다.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매체가 있어서 본인이 속한 다양한 집단의 따뜻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프라인보다는 무언가 결여된 그러한 느낌이 있다.

현재 간행되고 있는 동창회보도 그러

한 점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것들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은 파스칼보다는 딱딱함이 더 강한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다. 앞으로의 동창회보는 따뜻한 얘기가 많이 공존하는 인간적인 지면이 되어야 할 것 같다.



沈敬彦
(83년 工大卒)
모교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아직 학교에 계시는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졸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교직원 분들의 작지만 따뜻한 얘기들이 그림고,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의 패기 있는 얘기들이 그림고 것은 지금이 추운 겨울철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 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경쟁이 심해지는 시대에 동문들이 받아보는 동창회보에는 과거의 따뜻한 추억과 현재의 따뜻한 얘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현명한 혜안이 담겨있는 그러한 동창회보가 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동문들의 가슴이 더욱 따뜻해지고 나아가 사회도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은숙(주) △조원자(주) △최명자(주)
△최희영(주)

◆경남대 △강능원(주) △강원수(주)
△김병조(주) △김용선(주) △김용남(주)
△김현영(주) △고보관(주) △문산은(주)
△박수민(주) △박용환(주) △박정래(주)
△박재건(주) △신재옥(주) △윤 영철(주)
△이성득(주) △이인환(주) △정명호(주)
△채경옥(주) △최관호(주) △허원복(주)
△홍정권(주)

◆광대 △강은구(주) △고재건(주)
△곽진환(주) △구정기(주) △권병호(주)
△곽정수(주) △권정수(주) △김창남(주)
△김 화영(주) △김대관(주) △김박대(주)
△김병래(주) △김복기(주) △김삼병(주)
△김삼민(주) △김영민(주) △김용택(주)
△김정희(주) △김영주(주) △김윤식(주)
△김인구(주) △김일홍(주) △김자복(주)
△김자실(주) △김정수(주) △김정옥(주)
△김정환(주) △김진영(주) △김중환(주)
△김진우(주) △김현영(주) △김현진(주)
△김철도(주) △김희희(주) △김희준(주)
△나종태(주) △남승익(주) △남택중(주)
△류 훈(주) △분용우(주) △분정호(주)
△민경탁(주) △민병기(주) △민병우(주)
△박대철(주) △박병희(주) △박병철(주)
△박성훈(주) △박재희(주) △박우상(주)
△박이식(주) △박재희(주) △박정대(주)
△박종연(주) △박주환(주) △박준배(주)
△반정선(주) △배시화(주) △배종호(주)
△백남기(주) △백성하(주) △백원식(주)
△변종문(주) △부원준(주) △서동길(주)
△성현택(주) △손무이(주) △손정근(주)
△손태원(주) △손현철(주) △송승호(주)
△송재준(주) △신상용(주) △심덕룡(주)
△안동우(주) △안영배(주) △안호순(주)
△오재일(주) △우재길(주) △우영근(주)
△유건상(주) △유기훈(주) △유승준(주)
△유욱주(주) △유원영(주) △유현식(주)
△윤석근(주) △윤재현(주) △유재옥(주)
△윤찬영(주) △은근수(주) △이 동(주)
△이경환(주) △이병모(주) △이병수(주)
△이성달(주) △이서연(주) △이승득(주)
△이영우(주) △이영목(주) △이용재(주)
△이원배(주) △이일환(주) △이재은(주)
△이정민(주) △이종무(주) △이종삼(주)
△이희성(주) △임 용(주) △임병진(주)

△장종환(주) △장봉식(주) △장봉진(주)
△장명수(주) △장영희(주) △장영근(주)
△장우상(주) △장준덕(주) △정태성(주)
△정한준(주) △정해일(주) △정하준(주)
△조동우(주) △조민경(주) △조진현(주)
△조홍근(주) △주영철(주) △재수원(주)
△채수용(주) △최호석(주) △최성호(주)
△최승진(주) △하서용(주) △하태균(주)
◆충남대 △고보기(주) △권 전(주) △정(주)
△김관선(주) △김두철(주) △김수영(주)
△김영구(주) △김정권(주) △김정경(주)
△김정지(주) △김학민(주) △김학주(주)
△박경호(주) △박남수(주) △박태정(주)
△박용옥(주) △박자복(주) △박철용(주)
△박철주(주) △백인환(주) △소재선(주)
△조종상(주) △박일홍(주) △박진하(주)
△양종상(주) △여구동(주) △유서윤(주)
△유 석(주) △윤희환(주) △이강세(주)
△이강환(주) △이규연(주) △이병하(주)
△이병호(주) △이석기(주) △이석현(주)
△이성우(주) △이승원(주) △이영철(주)
△이원구(주) △이인호(주) △이철현(주)
△장 용(주) △장진희(주) △전계평(주)
△정갑주(주) △정기갑(주) △정기준(주)
△정현영(주) △최정면(주) △최우익(주)

◆문리대 △강봉식(주) △권기홍(주)
△김구영(주) △김기영(주) △김동진(주)
△김삼우(주) △김원봉(주) △김재민(주)
△문종상(주) △박일홍(주) △박진하(주)
△박재환(주) △서재찬(주) △성낙남(주)
△신종상(주) △여두중(주) △유희형(주)
△유근호(주) △이금세(주) △이달수(주)
△이달종(주) △이상무(주) △이영원(주)
△이재호(주) △임삼기(주) △임인숙(주)
△장인철(주) △장영애(주) △장주운(주)
△정태식(주) △조환익(주) △조영구(주)
△최희환(주) △최용옥(주) △한상복(주)
△홍명숙(주)

◆미대 △김경애(주) △김병태(주)
△노병자(주) △박재성(주) △서영영(주)
△안병숙(주) △염태정(주) △유 훈(주)
△이경자(주) △이동영(주) △이준환(주)
△이혜민(주) △전정관(주)

◆법대 △권광정(주) △김근조(주)
△김동식(주) △김동철(주) △김명식(주)
△김병용(주) △김영근(주) △김영기(주)
△김인수(주) △김재현(주) △김준봉(주)

△남영진(주) △복옥상(주) △문대건(주)
△박동서(주) △박동순(주) △박정우(주)
△박형수(주) △박화성(주) △송해영(주)
△신종현(주) △오인화(주) △염진영(주)
△여운주(주) △유인식(주) △이 서(주)
△이대영(주) △이 민수(주) △이성근(주)
△이진형(주) △이준원(주) △이현복(주)
△임관호(주) △장부용(주) △전용희(주)
△조수현(주) △조영준(주) △전영채(주)
△차종호(주) △최규남(주) △최영동(주)
△한원규(주) △한정길(주) △한정수(주)
△합철훈(주) △홍은영(주)

◆사대 △고옥순(주) △고원영(주)
△구수연(주) △구명숙(주) △구혜진(주)
△권오환(주) △권복용(주) △김민희(주)
△김병주(주) △김재훈(주) △김수신(주)
△김은재(주) △김정숙(주) △김철진(주)
△김홍기(주) △김희태(주) △나고선(주)
△박근성(주) △박대만(주) △박수용(주)
△박순애(주) △박재문(주) △송정수(주)
△안정환(주) △오소현(주) △유상주(주)
△이 종(주) △이도선(주) △이석주(주)
△이용수(주) △이우복(주) △이윤현(주)
△이정진(주) △이항구(주) △임원자(주)
△정구만(주) △정희섭(주) △전희환(주)
△허근구(주)

◆상대 △조봉운(주) △곽정중(주)
△권영장(주) △귀명진(주) △귀성열(주)
△민영동(주) △박홍서(주) △성종국(주)
△윤석현(주) △이두원(주) △이영상(주)
△이인용(주) △이정호(주) △이종영(주)
△이종문(주) △이종태(주) △전영기(주)
△장용팔(주) △정대경(주) △조삼규(주)
△조성진(주) △조전옥(주) △주 일(주)
△최수일(주) △최용호(주)

◆생활대 △김형민(주) △백화영(주)
△전일효(주)
◆수의대 △나준호(주) △심두성(주)
△인희열(주) △이종화(주) △이희구(주)
△전제규(주) △정신희(주) △최정영(주)
△홍인산(주)
◆약대 △고대승(주) △공윤태(주)
△김광식(주) △김기준(주) △김연태(주)
△김정우(주) △김진형(주) △로선희(주)
△민홍기(주) △박정선(주) △박재영(주)
△박희갑(주) △심정무(주) △임태윤(주)
△오영자(주) △유광수(주) △이강우(주)

△이성구(주) △아수화(주) △이용선(주)
△이희운(주) △임경아(주) △정숙기(주)
△차기현(주) △최복남(주) △최병진(주)
△황영옥(주)

◆음대 △강익원(주) △고원주(주)
△김영숙(주) △김종옥(주) △박병희(주)
△박지선(주) △서정철(주) △신혜주(주)
△유은숙(주) △이강숙(주) △이명주(주)
△이옥희(주) △이재원(주) △이현자(주)
△진소영(주) △조요림(주) △한민숙(주)
△현병하(주) △홍영자(주) △홍지영(주)
△황남준(주)

◆의대 △강지웅(주) △계수익(주)
△김종목(주) △김희숙(주) △김성진(주)
△김병수(주) △김인호(주) △박철구(주)
△민만우(주) △박종민(주) △서정돈(주)
△송영기(주) △송영옥(주) △신 실(주)
△이외곤(주) △성진우(주) △지석봉(주)
△장정용(주) △최기용(주)
◆치대 △맹정철(주) △박종우(주)
△아윤재(주) △오복운(주) △오인환(주)
△이성호(주) △이영민(주) △이후송(주)
△정금대(주) △정대현(주) △정민호(주)
△정진구(주) △주광선(주) △서우정(주)
△최갑수(주) △최동환(주) △최병식(주)

◆대원대 △김복기(주) △김서천(주)
△문영근(주) △박대관(주) △유복환(주)
△유원철(주) △이재희(주) △이정희(주)
△임연기(주) △상종일(주) △최유경(주)
△홍종국(주)
◆경대원 △김태환(주)
◆교대원 △심수정(주)
◆보대원 △김학영(주) △이형자(주)
△최 용(주)
△조영진(주) △김종영(주) △이원영(주)
◆원대원 △김현수(주) △노성호(주)
△박정환(주) △오명국(주) △정삼만(주)
△조영진(주)

◆한대원 △고성하(주) △김기욱(주)
△김한근(주) △신인교(주) △정동태(주)
◆AMP △고용식(주) △김광희(주)
△김기정(주) △김해경(주) △민경배(주)
△박영수(주) △백정기(주) △서부국(주)
△성박환(주) △송승효(주) △심재준(주)
△양종남(주) △양용식(주) △오인현(주)
△윤기선(주) △윤철목(주) △이규관(주)
△이명의(주) △이성호(주) △아영환(주)

△이원구(주) △이정훈(주) △이진성(주)
△임영환(주) △정태환(주) △정서현(주)
△조희연(주) △조석래(주) △차종은(주)
△한정상(주) △한현수(주) △황성열(주)

◆AP △고규근(주) △구교근(주)
△김광호(주) △김용철(주) △김은태(주)
△김윤식(주) △김종철(주) △김태호(주)
△삼학정(주) △박삼복(주) △박정경(주)
△성기탁(주) △이상구(주) △이원영(주)
△이종발(주) △이희환(주) △정문삼(주)
△조간득(주) △최익선(주) △최창호(주)
△현정원(주)

◆ACAD △김철수(주) △민병운(주)
△신원조(주) △송서현(주) △이 진원(주)
△이항구(주) △장수영(주) △정공일(주)
△홍성권(주)
◆AEP △김정경(주) △유운상(주)
△이재철(주) △이한희(주)
◆SGS △김명수(주)
◆CHCN △유세국(주)
◆APC △김동섭(주) △김병용(주)
△김선길(주) △신종희(주) △황상근(주)
◆HPM △김영호(주) △김진분(주)
△윤가남(주) △이정현(주) △이준영(주)
△황환선(주)

◆AIC △강나희(주) △강선구(주)
△김우태(주) △남호연(주) △사재철(주)
△정수택(주) △조서환(주)
◆AFB △김순애(주) △박삼택(주)
△안병근(주)
◆AMFR △권성태(주) △김승연(주)
△김희정(주) △남준희(주) △박재민(주)
△장석철(주) △정지택(주) △최대환(주)
△최희태(주) △최진희(주) △황재용(주)

분 담 금

◆호주 시드니지부 500\$
◆캐나다 밴쿠버지부 500\$
◆오스트리아지부 500\$

월 계 : 54,670,000원
평성회비 : 39,460,000원
입 회 비 : 80,000원
총 계 : 1,546,939,792원
+3,500\$

PDF & F-BOOK Design HANWOORIS.M